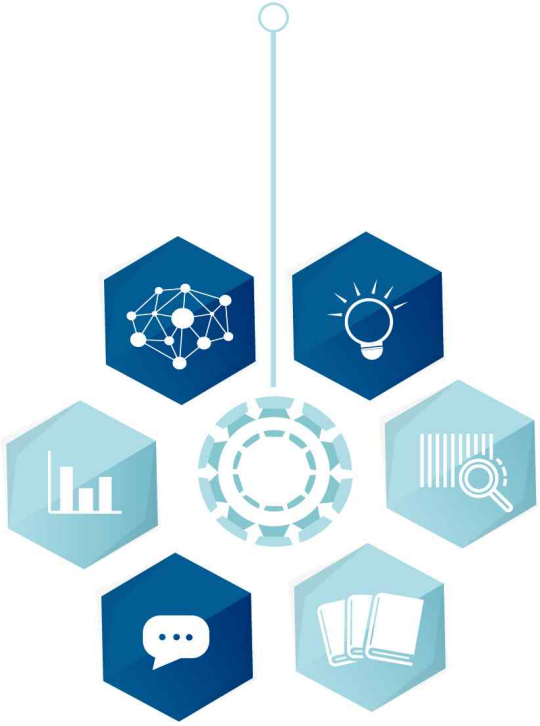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업무 연계 및 효과성 연구

2021. 11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 연구 기관 사단법인 출판유통진흥원

●● 연 구 진

책임연구원 최성구(출판유통진흥원 팀장)

공동연구원 김영식(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자 문 진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소장)

정유경(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오상희(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용훈(도서관문화비평가)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업무 연계 및 효과성 조사 연구』

발 행 일	2021년 11월
발 행 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02-535-4142
연구기관	사단법인 출판유통진흥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제 출 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업무 연계 및 효과성 조사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1월

사단법인 출판유통진흥원 회장 김종수

목 차

📖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5

1. 연구 내용 ····· 5

2. 연구 방법 ····· 6

📖 제2장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과 납본 현황 분석 ·11

제1절 ISBN 발급과 납본 현황 분석 ····· 1

1. 분석대상 ····· 11

2. 종이책의 ISBN 발급 대비 납본 현황 ····· 12

3. 전자책의 ISBN 발급 대비 납본 현황 ····· 12

제2절 ISSN 발급과 납본 현황 분석 ····· 62

1. ISSN 발급 매체형태별 분석 ····· 62

2. ISSN 발급 대비 납본 현황 ····· 62

📖 제3장 해외 사례와 국내 인식 조사 ·····13

제1절 해외 사례 조사 ····· 31

1.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의 상관관계 문헌 요약 ···· 31

2. OECD의 국제표준자료번호 운영 주체 ····· 32
3. ISBN 운영과 납본의 상관관계 ····· 38
제2절 국내 인식 조사 ····· 45
1. 설문조사 개요 ····· 45
2. 설문조사 대상자 및 응답 ····· 46
3. 국내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과 납본제도 인식 분석 ·· 48
제3절 시사점 ····· 53

📖 제4장 관련 법제도와 시스템 분석 및 운영 개선 ·75

제1절 관련 법제도와 시스템 분석 ····· 57
1.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의 법제도 연관 특징 ····· 57
2. 관련 법조문과 지침 ····· 61
3. 연관 시스템 분석 ····· 72
제2절 시사점과 개선 제언 ····· 73
1. 시사점 ····· 73
2. 개선 제언 ····· 76

📖 참고문헌 ····· 79

표 목 차

<표 2-1> 출판사 발행자번호 자릿수별 종이책과 전자책의 ISBN 발급 건수 추이 12
<표 3-1> OECD 38개국 ISBN 운영 주체 현황 ····· 23
<표 3-2> OECD 38개국 ISBN 운영 주체 세부 내용 ····· 33
<표 3-3> OECD 38개국 ISSN 운영 주체 현황 ····· 33
<표 3-4> OECD 38개국 ISSN 운영 주체 세부 내용 ····· 43
<표 3-5> OECD 38개국의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주관 웹사이트 주소 53
<표 3-6> OECD국가의 ISBN 운영과 납본 정보 제공 현황 ····· 83
<표 3-7> ISBN 발급 주체별 납본 정보 제공 방식 ····· 04
<표 3-8> ISBN 발급기관의 납본정보 제공방식과 납본율 ····· 14
<표 3-9> ISBN 발급 주체별 납본율 상관관계 ····· 24
<표 3-10> ISBN 발급 주체별 납본율 독립표본 T 검정(국가 VS 출판단체) 34
<표 3-11> ISBN 발급 주체별 납본율 독립표본 T 검정(국가 VS 민간기관) 34
<표 3-12> ISBN 발급 주체별 납본율 독립표본 T 검정(국가 VS 출판단체/민간기관) 44
<표 3-13> 설문조사 대상자 추출 과정과 유효 응답 수 ····· 64
<표 3-14> 설문조사 응답 출판사 발행자번호 자릿수 분포 ····· 74
<표 3-15> 종이책와 전자책의 납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test 분석 15
<표 4-1>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 4(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95
<표 4-2> 국가도서관의 ISBN, ISSN, CIP 운영 사례 ····· 95
<표 4-3> ISBN 민간 관리 국가의 ISBN 발급 비용 ····· 06
<표 4-4> 국가별 ISBN·ISSN 운영 및 관리 주체와 발급 비용 유무 06
<표 4-5> 납본 및 국제표준자료번호와 관련된 도서관법의 제·개정 연혁 ····· 16
<표 4-6>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 세부 지침- 납본(도서, 온라인자료) 16
<표 4-7>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 VS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대상 96

<표 4-8> ISBN 부여 대상과 제외 자료 ····· 07
<표 4-9> ISSN 부여 대상과 제외 자료 ····· 07

그 림 목 차

<그림 1-1> 3단계 연구 방법 ····· 6
<그림 2-1> 출판사 발행자번호 자릿수별 종이책과 전자책의 ISBN 발급 건수 추이 1· 1
<그림 2-2> ISBN 발급 대비 납본율과 출판유통 대비 납본율(막대 그래프) 3· 1
<그림 2-3> ISBN 발급 대비 납본율과 출판유통 대비 납본율(꺽은선 그래프) 3· 1
<그림 2-4> 발행자번호 자릿수 별 ISBN 발급대비 납본율 추이 ····· 4· 1
<그림 2-5> 발행자번호 자릿수 별 ISBN 발급대비 납본율 추이(10개 년) 5··· 1
<그림 2-6> 종이책 ISBN 부가기호 - 독자대상기호 대비 납본율(꺽은선 그래프) 6· 1
<그림 2-7> 종이책 ISBN 부가기호 - 독자대상기호 대비 납본율(막대 그래프) 6· 1
<그림 2-8> 종이책 ISBN 부가기호 - 내용분류기호 대비 납본율(꺽은선 그래프) 7· 1
<그림 2-9> 종이책 ISBN 부가기호 - 내용분류기호 대비 납본율(막대 그래프) 7· 1
<그림 2-10> 종이책 ISBN 부가기호 - 발행형태기호 대비 납본율(꺽은선 그래프) 8· 1
<그림 2-11> 종이책 ISBN 부가기호 - 발행형태기호 대비 납본율(막대 그래프) 8· 1
<그림 2-12> 종이책 ISBN 부가기호 독자대상기호 대비 미납본 비율 9· 1
<그림 2-13> 종이책 ISBN 부가기호 내용분류기호 대비 미납본 비율 9· 1
<그림 2-14> 종이책 ISBN 부가기호 발행형태기호 대비 미납본 비율 0· 2
<그림 2-15> ISBN 발급 대비 전자책 납본율과 출판유통 대비 납본율(막대 그래프) 1· 2
<그림 2-16> ISBN 발급 대비 전자책 납본율과 출판유통 대비 납본율(꺽은선 그래프) 2·· 2
<그림 2-17> 전자책 발행자번호 자릿수 별 ISBN 발급대비 납본율 추이 2· 2
<그림 2-18> 전자책 ISBN 부가기호 - 독자대상기호 대비 납본율(꺽은선 그래프) 3· 2
<그림 2-19> 전자책 ISBN 부가기호 - 독자대상기호 대비 납본율(막대 그래프) 3· 2
<그림 2-20> 전자책 ISBN 부가기호 - 내용분류기호 대비 납본율(꺽은선 그래프) 4· 2
<그림 2-21> 전자책 ISBN 부가기호 - 내용분류기호 대비 납본율(막대 그래프) 4· 2
<그림 2-22> 전자책 ISBN 부가기호 독자대상기호 대비 미납본 비율 5· 2

<그림 2-23> 전자책 ISBN 부가기호 독자대상기호 대비 미납본 비율 52
<그림 2-24> ISSN의 매체형태별 분석 ····· 62
<그림 2-25> ISSN 발급 대비 납본율 ····· 62
<그림 2-26> 인쇄물 ISSN 번호 발급 대비 납본수 및 납본율 ····· 72
<그림 2-27> 온라인 ISSN 번호 발급 대비 납본수 및 납본율 ····· 72
<그림 3-1> OECD 38개국 ISBN 운영 주체 현황 ····· 23
<그림 3-2> OECD 38개국 ISSN 운영 주체 현황 ····· 43
<그림 3-3> 납본 정보 제공 방식별 납본율 비교 ····· 14
<그림 3-4> ISBN 발급 주체별 납본율 분산분석 비교 ····· 24
<그림 3-5> 종이책 ISBN 발급과 납본 인식 구조방정식 분석 ····· 94
<그림 3-6> 전자책 ISBN 발급과 납본 인식 구조방정식 분석 ····· 05
<그림 3-7> ISSN 발급과 납본 인식 구조방정식 분석 ····· 25
<그림 4-1> 한국문헌번호 제도 운영의 5가지 특징 ····· 85
<그림 4-2>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메인 페이지 구조 ····· 27
<그림 4-3> 납본 대상 자료와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대상 관계 ····· 47

제 1 장

서론

제1절 I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I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국립중앙도서관은 1990년부터 도서의 표준화된 식별을 위해 「도서관법」 21조에 의거, 국제ISBN기구 및 국제ISSN센터에 가입하고 한국서지표준센터(舊 한국문헌번호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발급하는 국가관리기구 역할을 수행해 옴

○ 또한 국가문헌의 보존과 이용 목적으로 1963년 「도서관법」에 납본제도가 제정되었으며, 출판 환경 변화에 따라 2016년 개정된 동법에는 온라인 자료의 납본 수집이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음

○ 최근 미디어 환경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변화된 출판물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출판물 식별체계 제도 운영의 중요성과 국가지식정보를 수집(납본)하는 국가도서관의 역할과 사명은 더욱 중대해짐

○ 즉,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는 출판·유통 측면에서 주제·출판사·형식 등 다양한 기준의 국내외 유통·판매 현황 분석 뿐 아니라, 도서관 운영 측면에서도 자료수집(납본)에 활용하여 중복 수집을 막고 효율적 장서관리에도 이점이 있음

○ 이에 지난 30년 동안 출판물 식별체계 운영의 국가센터로서 출판물의 생산·유통·소비환경에 대응해 온 한국서지표준센터의 역할과 국가도서관의 법적 납본제도 연계성과 효율성을 조사·분석하여 미래를 준비할 두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 목적

○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와 납본 현황 분석

○ 해외 사례와 국내 인식 조사

○ 관련 법제도와 시스템 연계성 검토

○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업무 운영 개선 제언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가.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과 납본 현황 분석

○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추이 분석

○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대비 납본 수집 추이 분석

○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대비 유형별 납본 수집 내역 분석

○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대비 미납본 자료 분석

나. 해외 사례와 국내 인식 조사

○ OECD 국가의 국제표준자료번호 운영 현황 조사

○ 주요국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및 납본제도 관련성 조사

○ 국립도서관/출판계 주도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와 납본 연계성 분석

○ 국제표준자료번호 및 납본 인식 현황 조사

다.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업무 연계 운영 개선

○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제도 연계성 검토

○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및 납본업무 운영 연계 현황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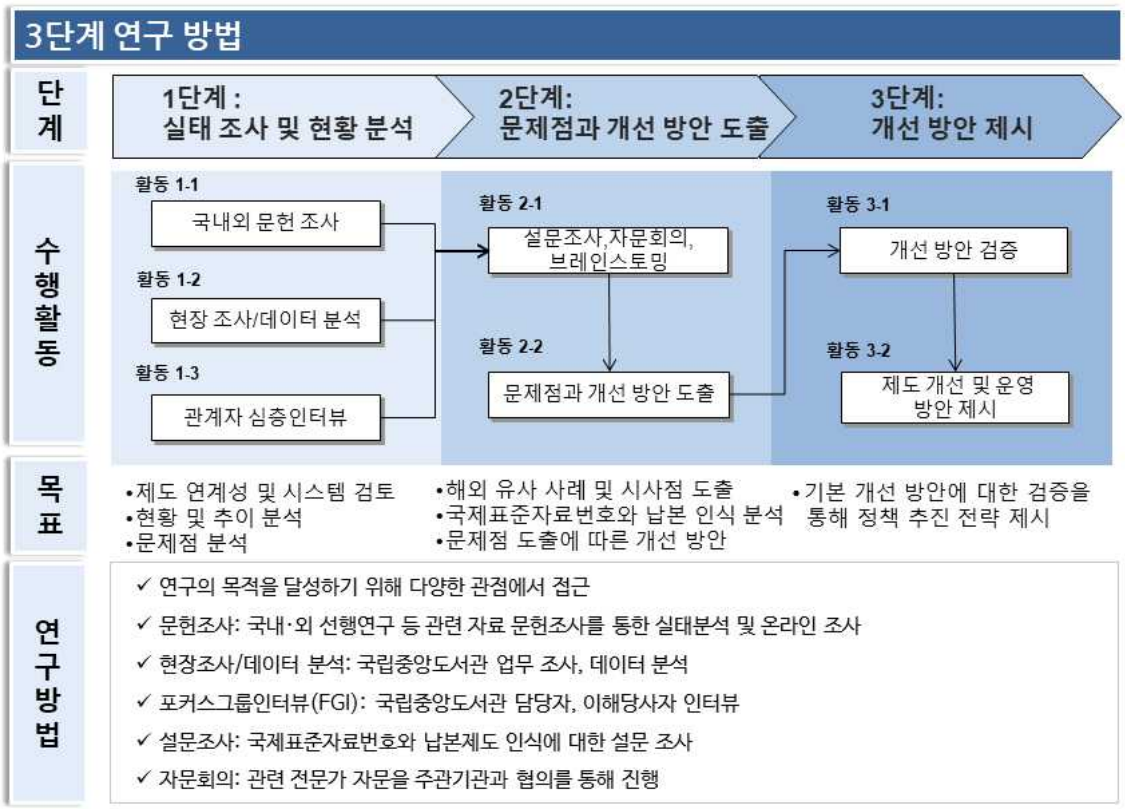
○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와 납본수집 현황 문제점

○ 법·제도 및 시스템 운영 개선 제언

2. 연구 방법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3단계 연구 수행 방법에 따른 수행 활동과 목표 그리고 연구 방법은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3단계 연구 방법



- 단계별 수행 활동과 목표

  - 1단계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국내·외 선행연구 등 관련 자료 문헌조사를 통한 실태분석, 현장조사와 데이터 분석, 관계자 인터뷰

  - 2단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도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와 납본 세부 운영 분석 문제점 도출, 해외 유사 사례 및 시사점 도출,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인식 분석, 문제점 도출에 따른 개선 방안

  - 3단계 개선 방안 제시: 기본 개선 방안 마련과 검증을 통해 운영 개선 방안 제시

- 문헌 연구 및 온라인 조사
  - 국내·외 선행연구 등 관련 자료 문헌조사를 통한 실태 분석
  - 국내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등 관련 법제도 조사
  - 해외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수집 상관관계 관련 자료 분석
  - 해외 유관 기관 이메일(e-mail) 문의
-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와 납본 수집 담당자 면담
- 데이터 분석
  - 국제표준자료부여와 납본 수집 데이터 분석
  -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이용하여 국가(도서관), 출판단체, 민간기관 주도의 ISBN 발급 형태에 따른 국가별 납본율의 차이를 분석
  - ISBN 발급 운영 주체별 납본율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 검정 수행
  - 납본정보 제공방식과 납본율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회귀분석 수행
- 설문조사
  - 국내 출판사 인식 설문조사 분석
  -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인식을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 수행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제2장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과 납본 현황 분석

제1절 | ISBN 발급과 납본 현황 분석
제2절 | ISSN 발급과 납본 현황 분석

제2장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과 납본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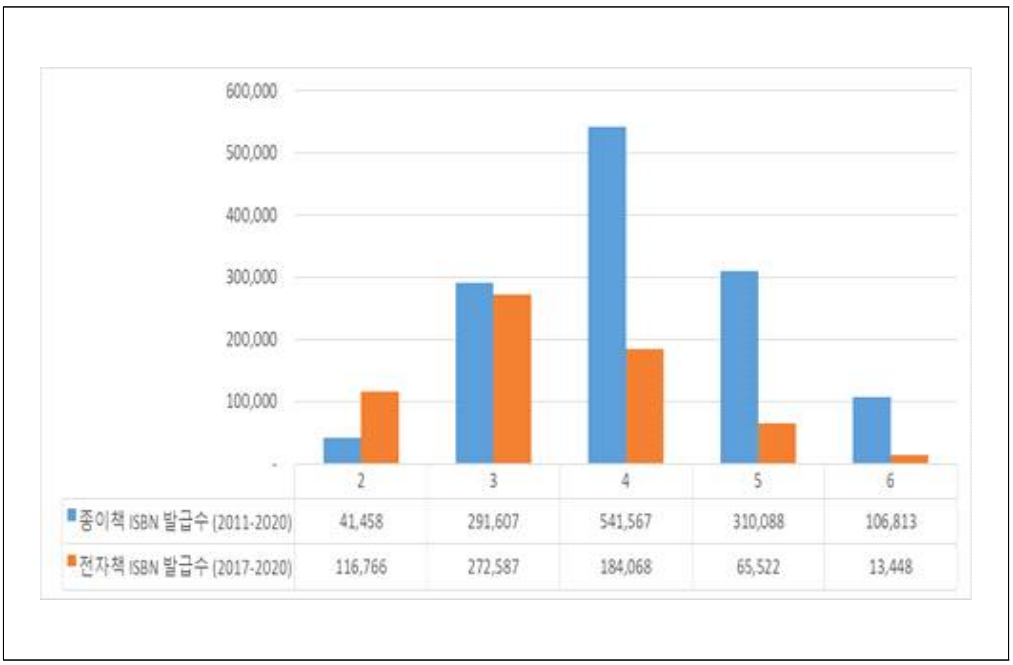
제1절 ISBN 발급과 납본 현황 분석

1. 분석대상

○ 분석대상: 종이책과 전자책의 ISBN 발급 건수를 납본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함

- 종이책 ISBN 기준 지난 10년 간(2011~2020년) 129만 여건 부여 대상 분석
- 전자책 ISBN 기준 지난 4년 간(2017~2020년) 65만 여건 부여 대상 분석

<그림 2-1> 출판사 발행자번호 자릿수별 종이책과 전자책의 ISBN 발급 건수 추이



	2	3	4	5	6
종이책 ISBN 발급수 (2011-2020)	41,458	291,607	541,567	310,088	106,813
전자책 ISBN 발급수 (2017-2020)	116,766	272,587	184,068	65,522	13,448

<표 2-1> 출판사 발행자번호 자릿수별 종이책과 전자책의 ISBN 발급 건수 추이

자릿수	종이책 ISBN 발급 수 (2011~2020)	전자책 ISBN 발급 수 (2017~2020)
2	41,458	116,766
3	291,607	272,587
4	541,567	184,068
5	310,088	65,522
6	106,813	13,448
합계	1,291,533	652,391

2. 종이책의 ISBN 발급 대비 납본 현황

가. 종이책 ISBN 발급 대비 납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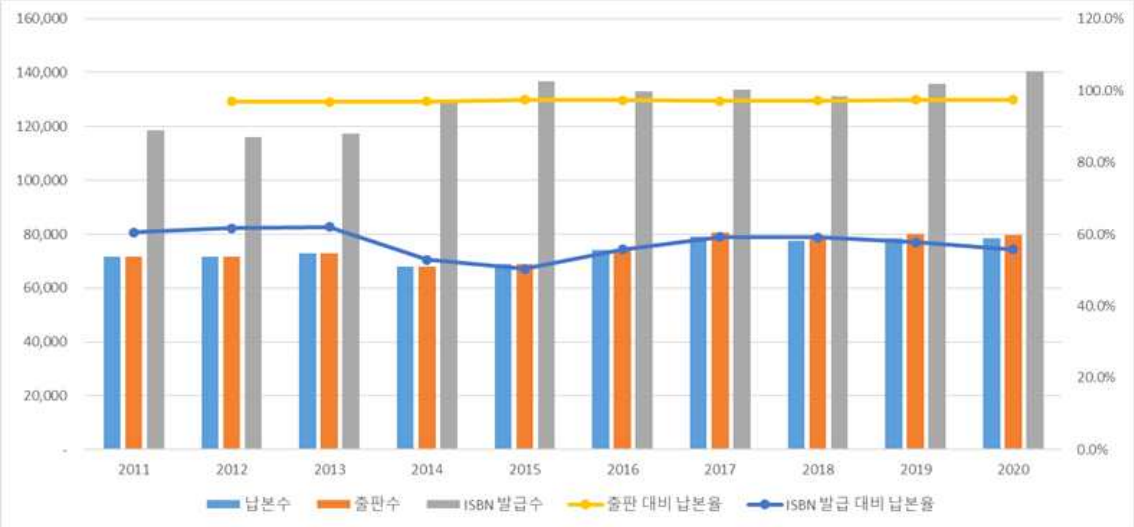
○ 종이책의 ISBN 발급 건수를 납본 데이터와 비교 분석함

- ISBN 발급 대비 납본율: 이 연구에서 ISBN 발급과 납본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ISBN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당해에 납본이 완료된 비율로 정의하며, 통상적인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과의 납본율과 다름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과에서 산출하는 납본율은 출판유통이 확인되는 납본대상 도서의 납본 완료 비율을 말하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반도서의 납본율은 97.4%임

○ 종이책의 ISBN 발급 건수를 납본 데이터와 비교 분석 결과 2011~2020년을 기준으로 'ISBN 발급 대비 종이책 납본율'은 약 50~60%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2-2> ISBN 발급 대비 납본율과 출판유통 대비 납본율(막대 그래프)



<그림 2-3> ISBN 발급 대비 납본율과 출판유통 대비 납본율(꺾은선 그래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4 서지	39.4%	38.3%	38.0%	47.1%	49.6%	44.1%	39.5%	39.4%	41.2%	43.2%
2 출판	0.0%	0.0%	0.0%	0.1%	0.1%	0.0%	1.2%	1.5%	1.1%	1.0%
1 납본	60.6%	61.7%	62.0%	52.8%	50.4%	55.8%	59.3%	59.1%	57.7%	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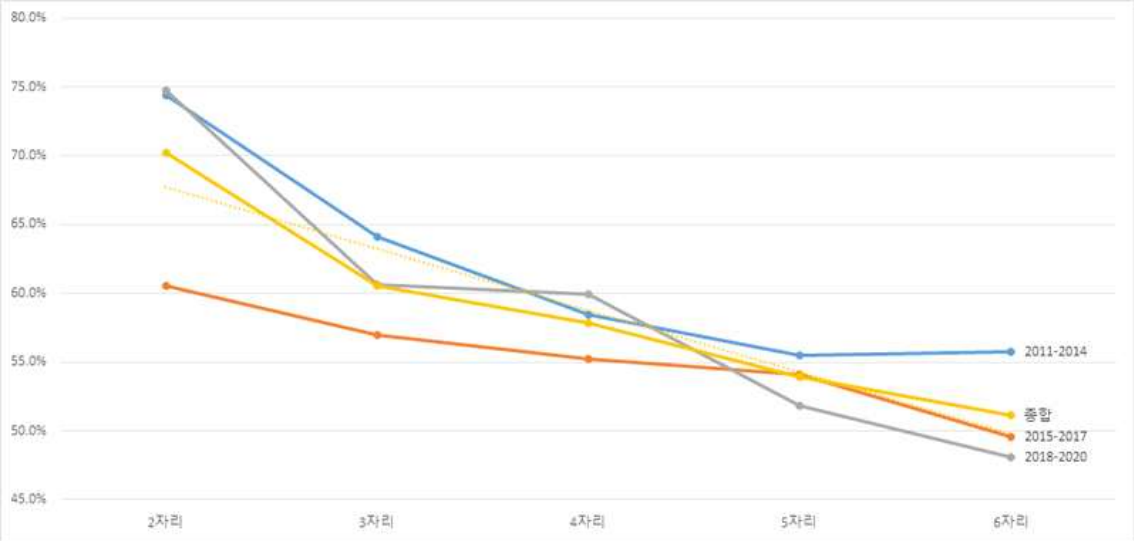
나. 종이책 발행자번호 자릿수 별 ISBN 발급대비 납본율

○ 발행자번호 자릿수 별 종이책의 ISBN 발급 건수를 납본 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결과 출판사 규모가 클수록 납본율이 높으며 작을수록 낮음

- 2011~2014년, 2015~2017년, 2018~2020년으로 나누고, 종합하여 분석을 수행

- ISBN 발급 건수 대비 출판사 규모가 클수록 납본율이 높으며 작을수록 저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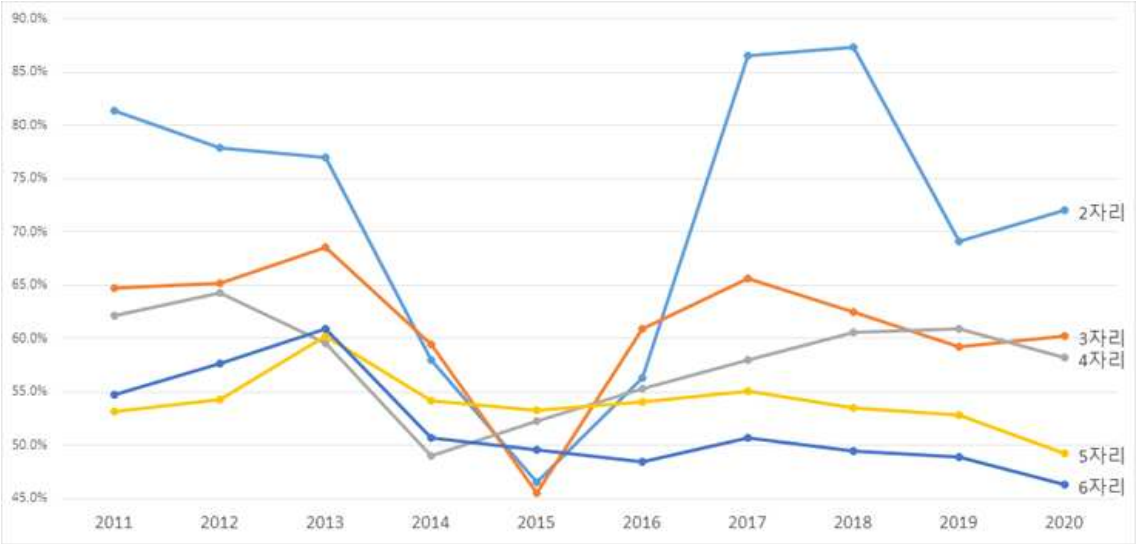
<그림 2-4> 발행자번호 자릿수 별 ISBN 발급대비 납본율 추이



○ 발행자 번호 자릿수별 ISBN 발급 대비 연간 납본율 추이

- 2자리 발행자번호를 가진 출판사는 대체적으로 납본율이 좋으나 등락이 있음
- 3자리 발행자번호를 가진 출판사는 납본율이 비슷하거나 등락이 있음
- 4자리 발행자번호를 가진 출판사는 납본율이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
- 5, 6자리 발행자번호를 가진 출판사의 납본율이 2017년 이후 줄어들고 있음
- 2015년을 전후로 2, 3, 4자리 발행자번호를 가진 출판사의 납본율이 하락함

<그림 2-5> 발행자번호 자릿수 별 ISBN 발급대비 납본율 추이(10개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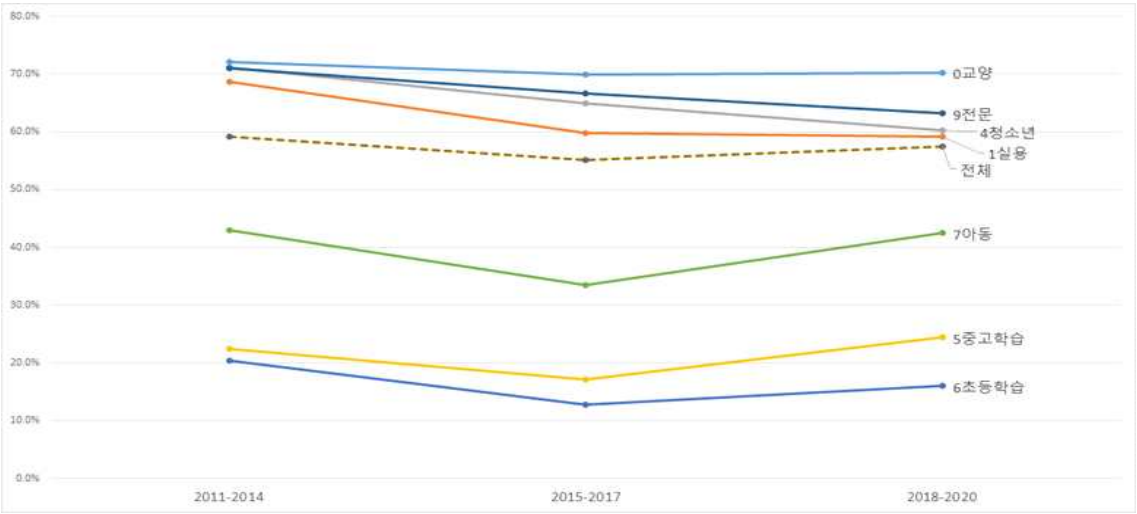


다. 종이책 ISBN 부가기호 - 독자대상기호 대비 납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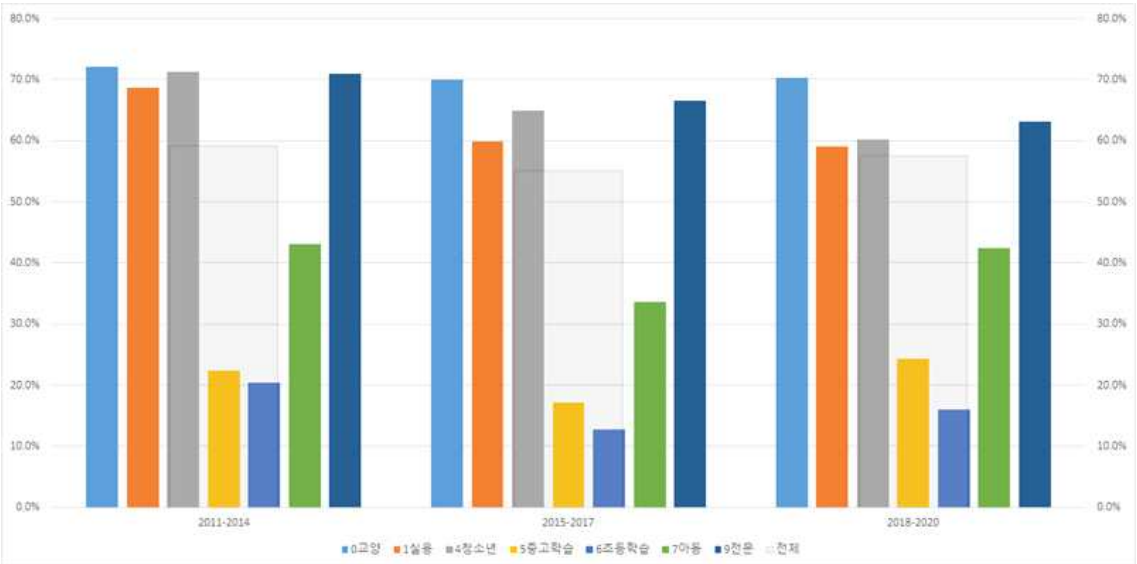
○ ISBN 부가기호 독자대상기호 대비 납본율 분석

- 2011~2014년, 2015~2017년, 2018~2020년으로 나누어서 같은 분석을 수행
- 교양, 실용, 청소년, 전문서의 납본율은 전체 평균을 상회
- 초등학습, 중고학습, 아동서의 납본율은 전체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음

<그림 2-6> 종이책 ISBN 부가기호 - 독자대상기호 대비 납본율(꺾은선 그래프)



<그림 2-7> 종이책 ISBN 부가기호 - 독자대상기호 대비 납본율(막대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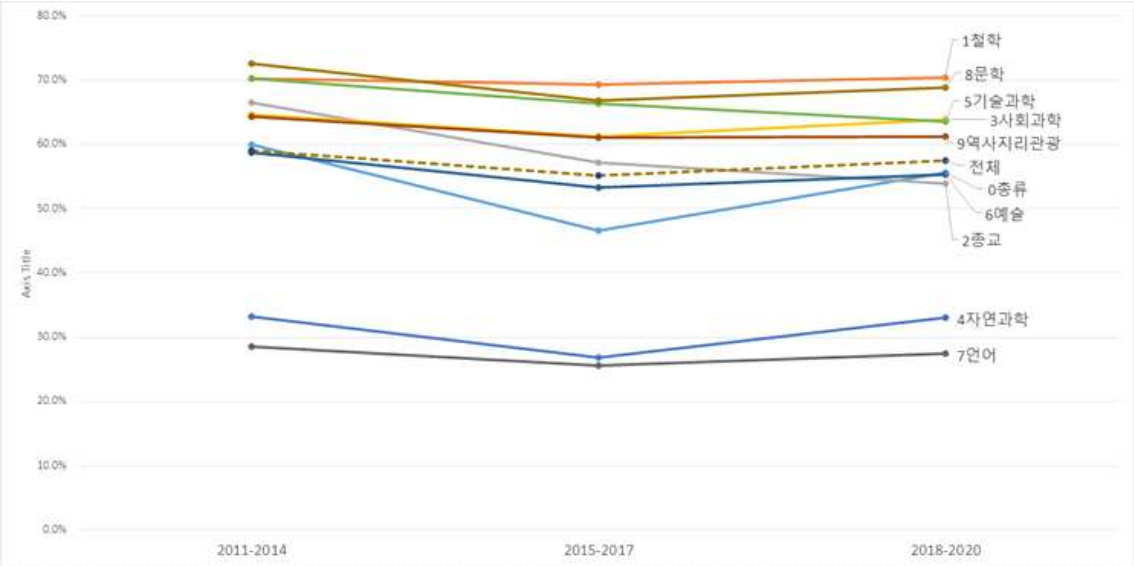


라. 종이책 ISBN 부가기호 - 내용분류기호 대비 납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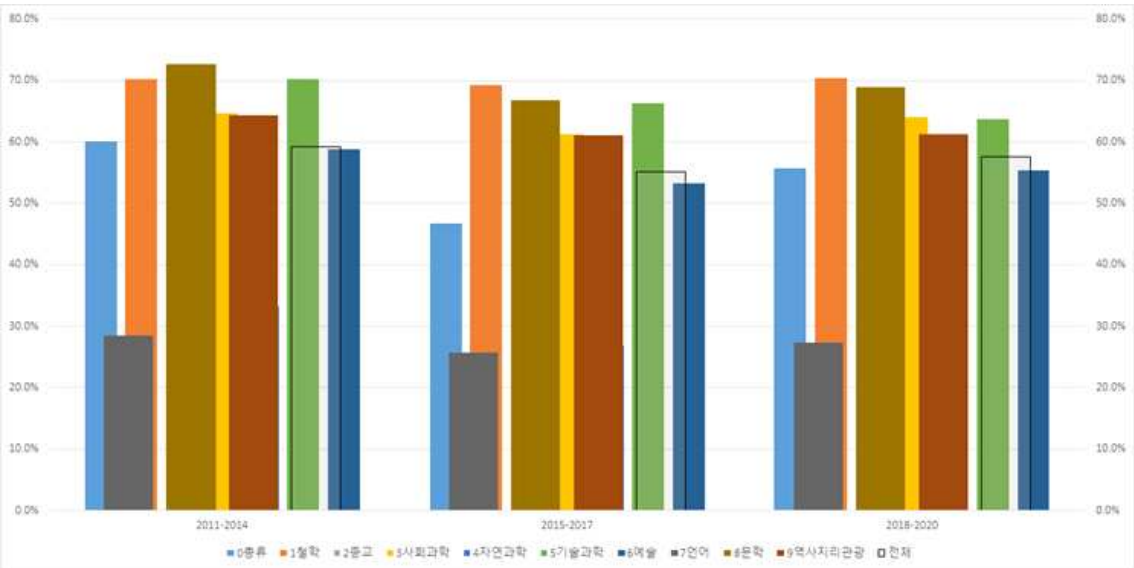
○ ISBN 부가기호 내용분류 기호 대비 납본율 분석

- 철학, 문학, 기술과학, 사회과학, 역사지리관광서의 납본율은 평균을 상회함
- 총류, 예술, 종교의 납본율은 평균에 다소 미달하며, 자연과학, 언어 분야의 납본율이 상당히 저조함

<그림 2-8> 종이책 ISBN 부가기호 - 내용분류기호 대비 납본율(꺾은선 그래프)



<그림 2-9> 종이책 ISBN 부가기호 - 내용분류기호 대비 납본율(막대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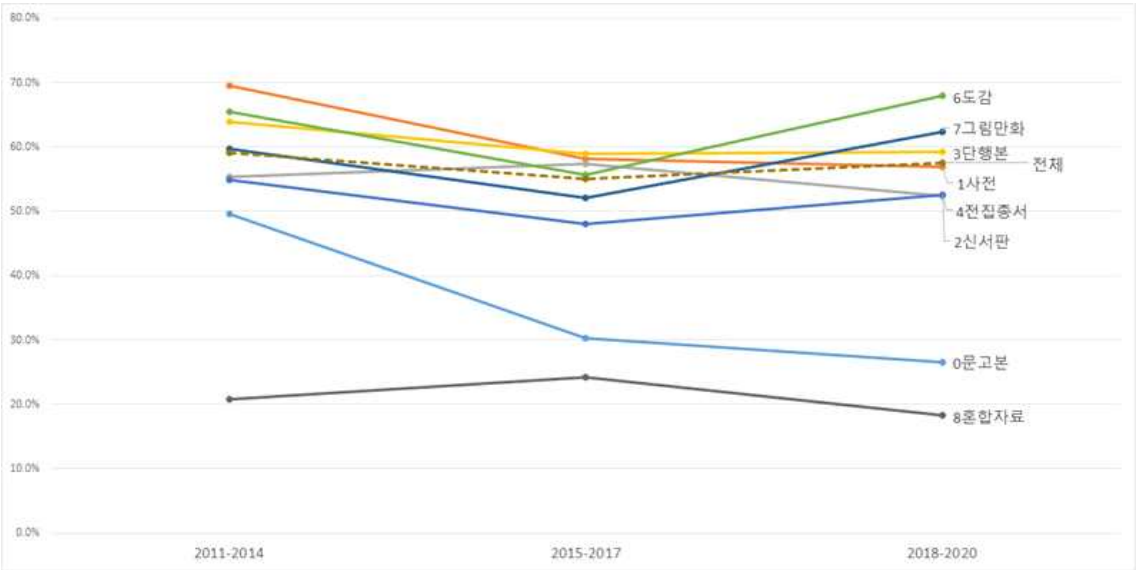


마. 종이책 ISBN 부가기호 - 발행형태기호 대비 납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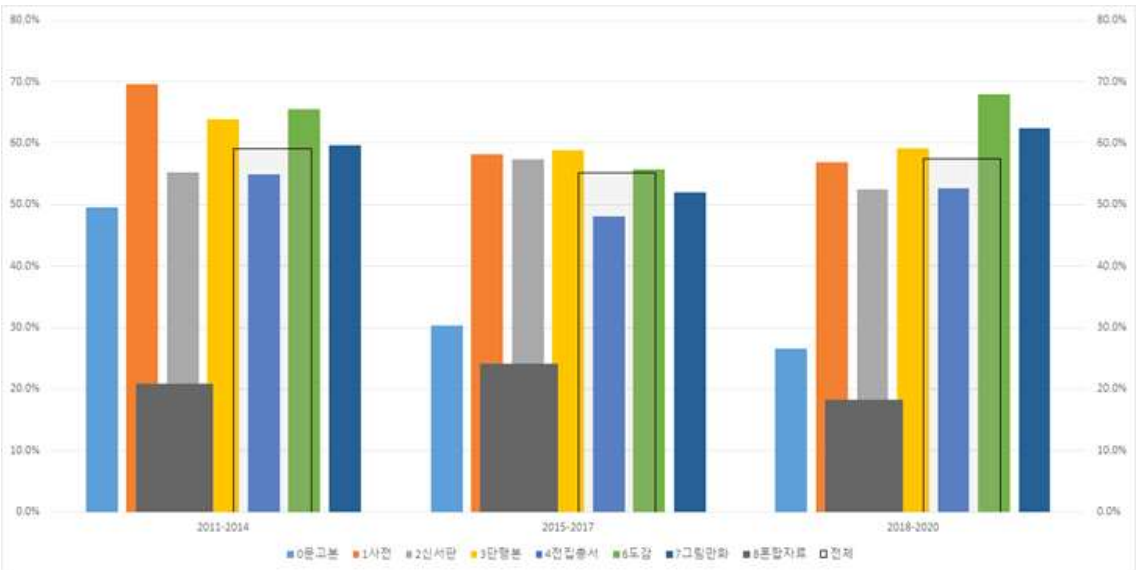
○ ISBN 부가기호 발행형태기호 대비 납본율 분석

- 2011~2014년, 2015~2017년, 2018~2020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수행
- 도감, 그림만화, 단행본은 평균 이상이나 신서판, 전집총서의 납본율은 평균 이하임
- 문고본과 혼합자료의 납본율이 저조, 특히 혼합자료의 납본율은 평균의 1/3 수준

<그림 2-10> 종이책 ISBN 부가기호 - 발행형태기호 대비 납본율(꺾은선 그래프)



<그림 2-11> 종이책 ISBN 부가기호 - 발행형태기호 대비 납본율(막대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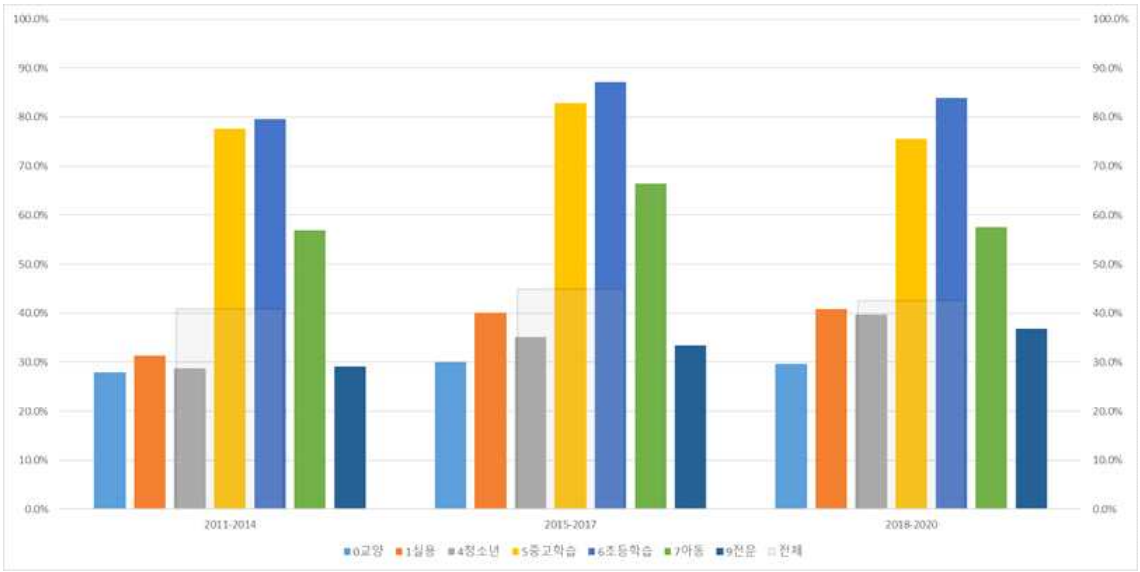


바. 종이책 ISBN 부가기호 대비 미납본 도서 분석

1) 종이책 ISBN 부가기호 독자대상기호 대비 미납본 도서

○ 종이책 ISBN 발급 대비 미납본 도서의 독자대상기호를 보면 초등학습, 중고학습도서의 미납본율(2018~2020년)이 약 80% 내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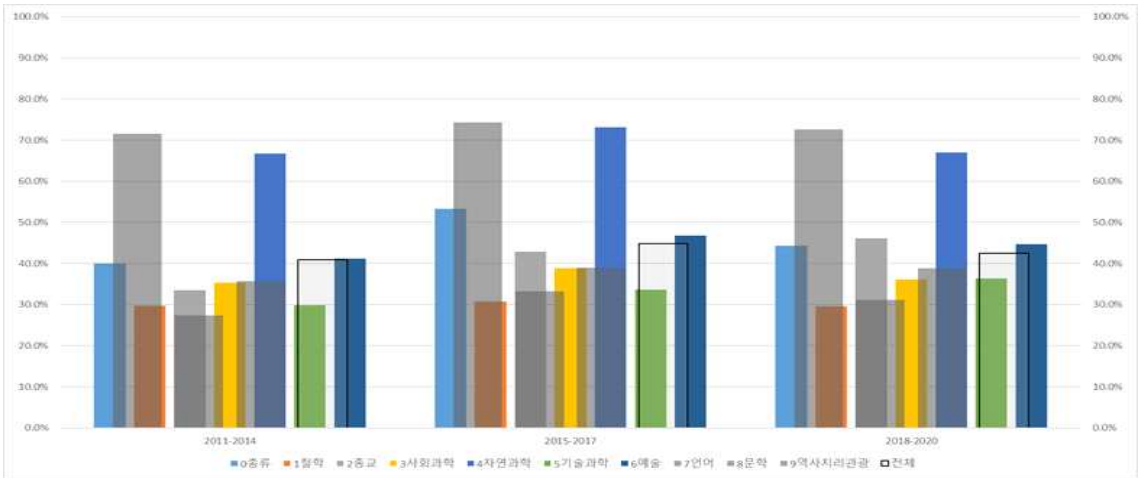
<그림 2-12> 종이책 ISBN 부가기호 독자대상기호 대비 미납본 비율



2) 종이책 ISBN 부가기호 내용분류기호 대비 미납본 도서

○ 종이책 ISBN 발급 대비 미납본 도서의 내용분류기호를 보면 언어, 자연과학의 미납본율(2018~2020년)이 약 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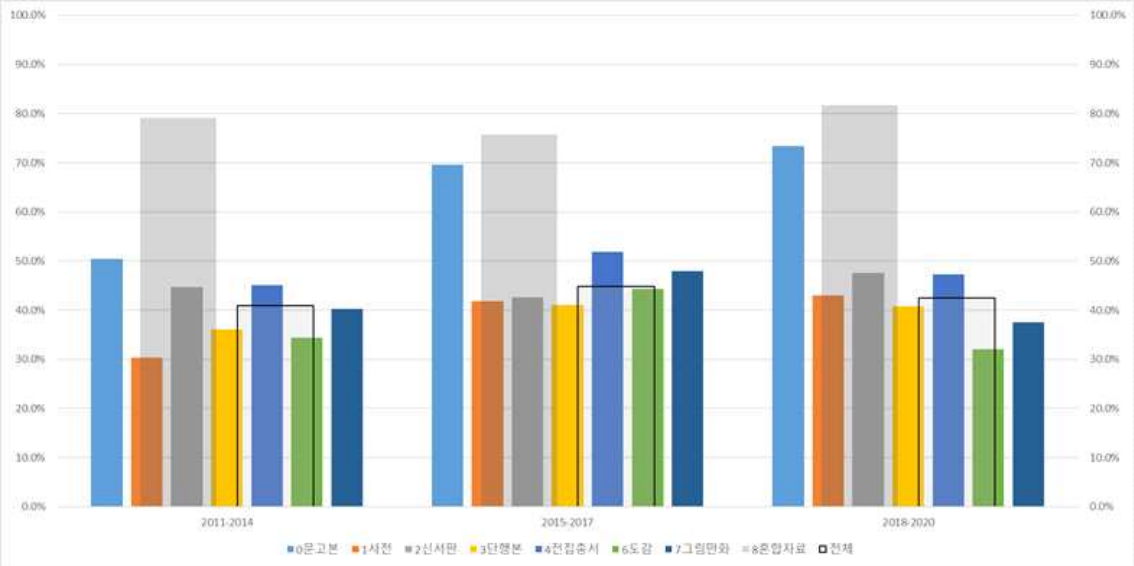
<그림 2-13> 종이책 ISBN 부가기호 내용분류기호 대비 미납본 비율



3) 종이책 ISBN 부가기호 발행형태기호 대비 미납본 도서

○ 종이책 ISBN 발급 대비 미납본 도서의 발행형태기호를 보면 혼합자료, 문고본의 미납본율(2018~2020년)이 약 70~8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그림 2-14> 종이책 ISBN 부가기호 발행형태기호 대비 미납본 비율



3. 전자책의 ISBN 발급 대비 납본 현황

가. 전자책 ISBN 발급 대비 납본율

○ 전자책의 ISBN 발급 건수를 납본 데이터와 비교 분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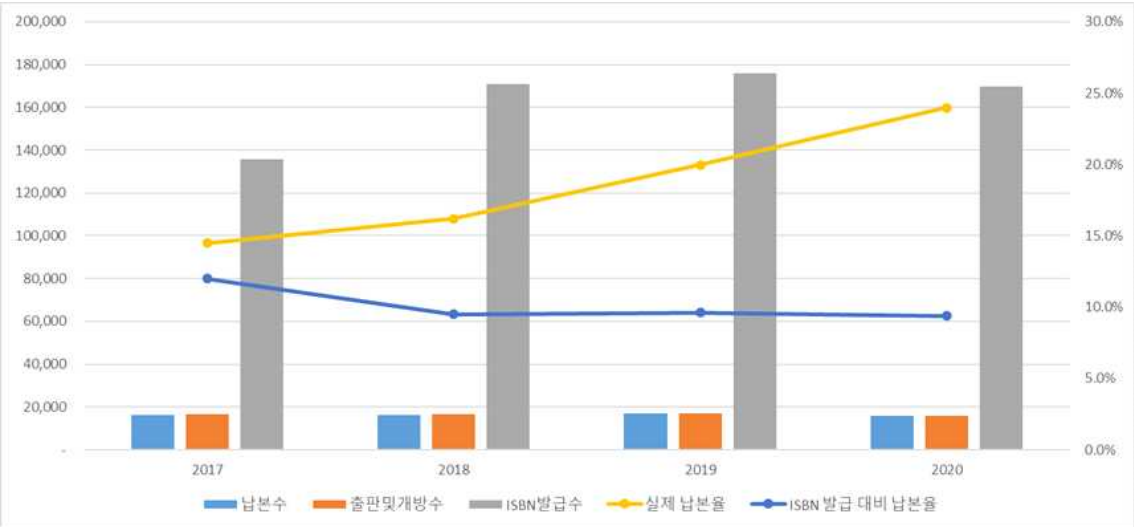
- ISBN 발급 대비 납본율: 이 연구에서 ISBN 발급과 납본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ISBN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당해에 납본이 완료된 비율로 정의하며, 통상적인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과의 납본율과 다름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과에서 산출하는 납본율은 출판유통이 확인되는 납본대상 도서의 납본 완료 비율을 말하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자책 납본율은 약 2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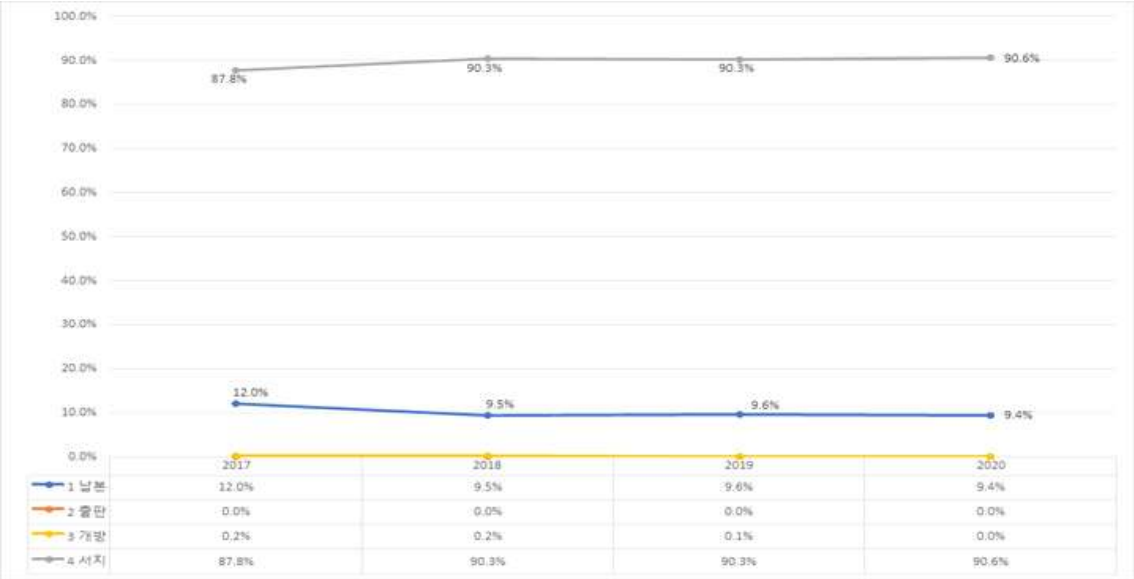
○ 전자책의 ISBN 발급 건수를 납본 데이터와 비교 분석 결과 2017~2020년을 기준으로 'ISBN 발급 대비 전자책 납본율'은 약 10% 내외로 나타남

- 'ISBN 발급 대비 납본율'은 2017~2020년 기준 약 9.4%~12.0%로 나타남

<그림 2-15> ISBN 발급 대비 전자책 납본율과 출판유통 대비 납본율(막대 그래프)



<그림 2-16> ISBN 발급 대비 전자책 납본율과 출판유통 대비 납본율(꺽은선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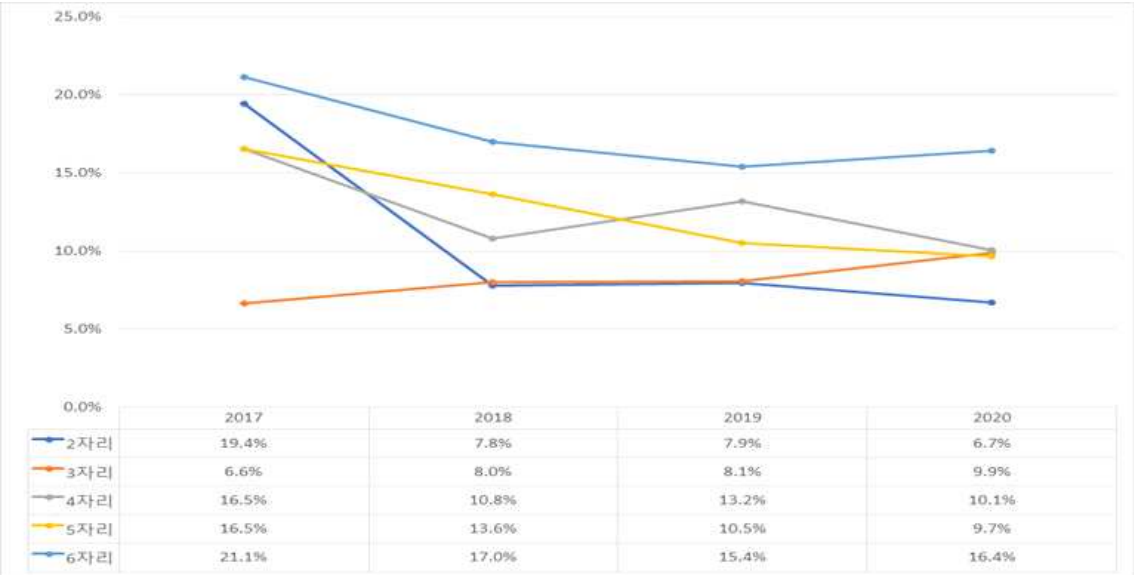
나. 전자책 발행자번호 자릿수 별 ISBN 발급대비 납본율

○ 발행자번호 자릿수 별 전자책 ISBN 발급 건수를 납본 데이터와 비교 분석 함

- 종이책과 달리 전자책의 경우 출판사 규모에 상관없이 납본율이 저조함

- 규모가 작은 출판사(6자리)가 상대적으로 납본율이 좋음

<그림 2-17> 전자책 발행자번호 자릿수 별 ISBN 발급대비 납본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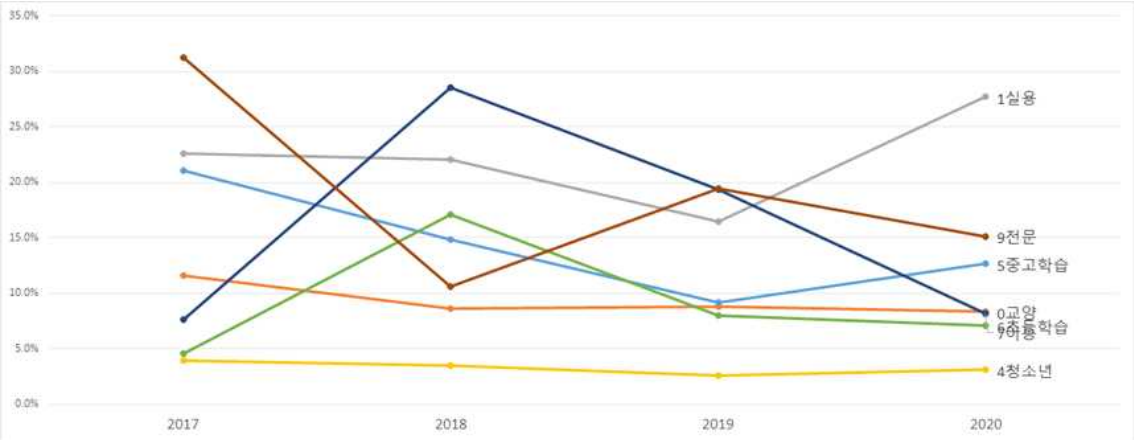


다. 전자책 ISBN 부가기호 - 독자대상기호 대비 납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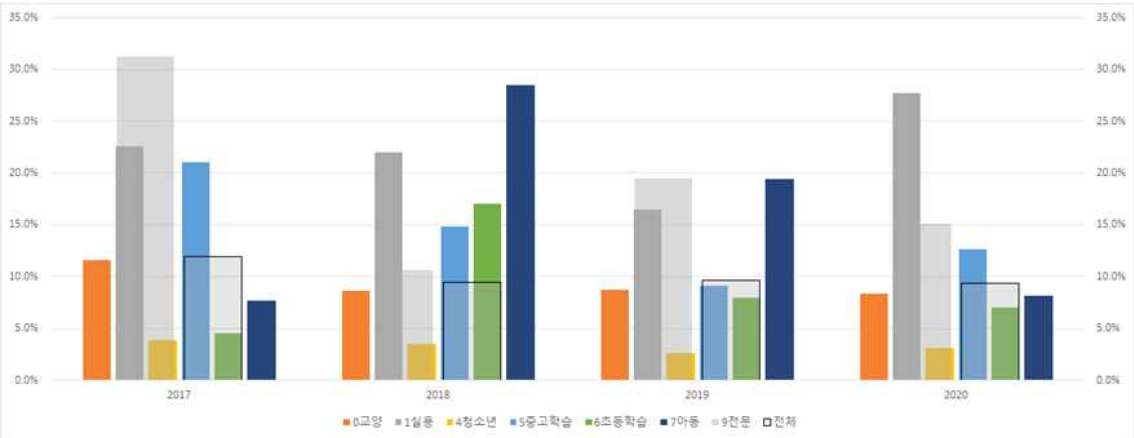
○ 전자책 ISBN 부가기호 독자대상 기호 대비 납본 데이터와 비교 분석

- 독자대상 납본율 추이는 등락이 심하며, 실용서는 평균이상, 교양서는 평균 유지
- 2020년 기준 실용, 전문서, 중고학습서가 평균 이상의 납본율을 기록함
- 2020년 기준 초등학습, 아동서, 교양은 평균 이하의 납본율을 기록함

<그림 2-18> 전자책 ISBN 부가기호 - 독자대상기호 대비 납본율(꺾은선 그래프)



<그림 2-19> 전자책 ISBN 부가기호 - 독자대상기호 대비 납본율(막대 그래프)



라. 전자책 ISBN 부가기호 - 내용분류기호 대비 납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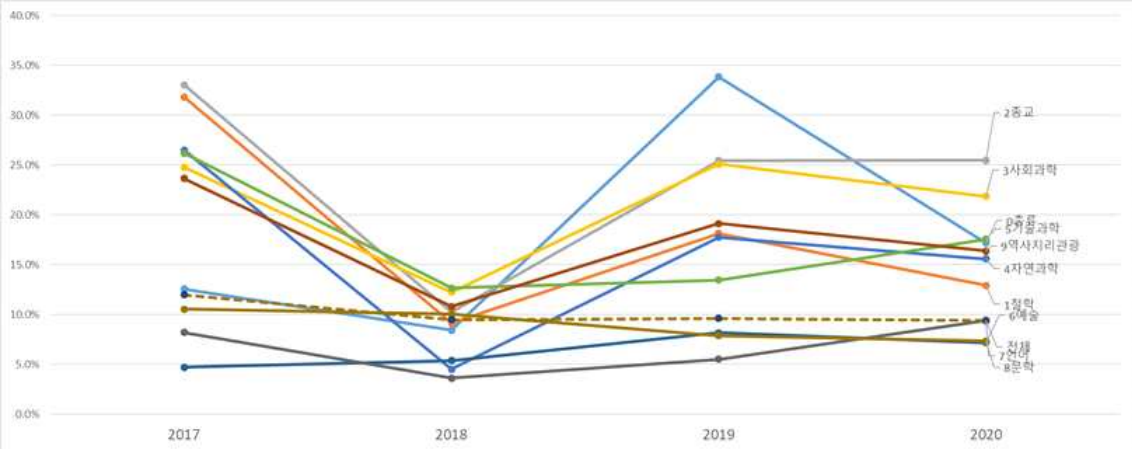
○ 전자책 ISBN 부가기호의 내용분류기호 대비 납본 데이터와 비교 분석

- 전자책의 경우 ISBN 부가기호 내용분류기호 중 문학이 대부분(76.4%)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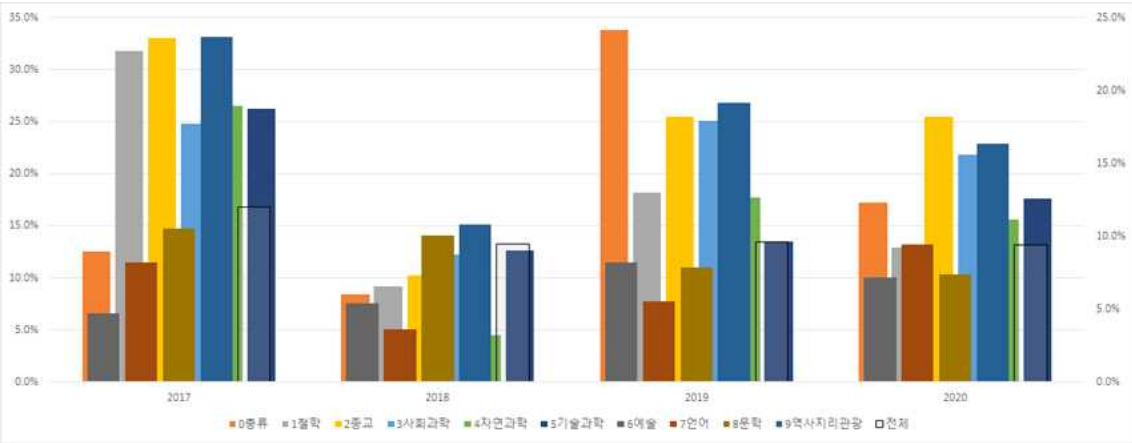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종교, 사회과학, 총류, 예술, 기술과학, 역사지리관광, 자연과학이 평균 이상의 납본율을 기록, 철학은 평균치를 나타냄

- 2020년 기준 문학, 언어가 평균 이하의 납본율을 기록함

<그림 2-20> 전자책 ISBN 부가기호 - 내용분류기호 대비 납본율(꺾은선 그래프)



<그림 2-21> 전자책 ISBN 부가기호 - 내용분류기호 대비 납본율(막대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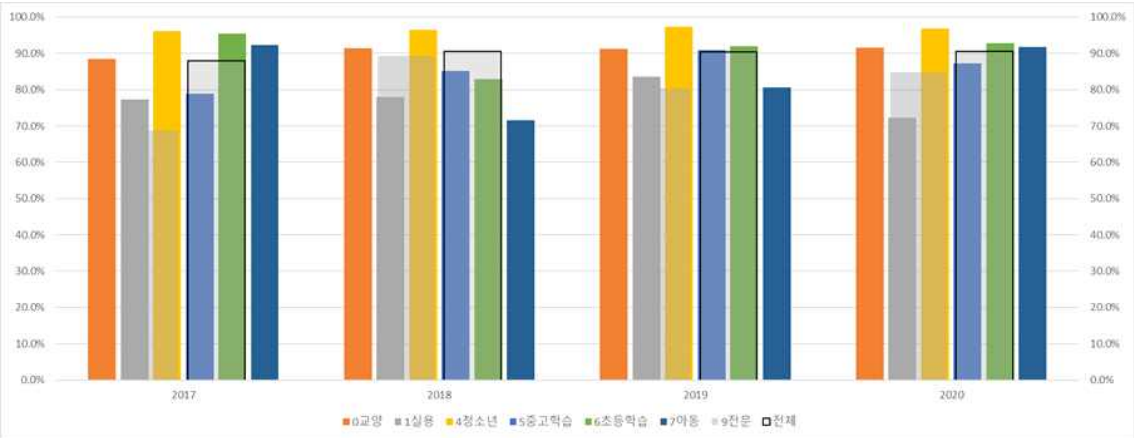


마. 전자책 ISBN 부가기호 대비 미납본 도서 분석

1) 전자책 ISBN 부가기호 독자대상기호 대비 미납본 도서

○ 전자책 ISBN 발급 대비 미납본 도서의 독자대상기호를 보면 청소년, 교양, 초등학습, 아동의 미납본율(2018~2020년)이 약 9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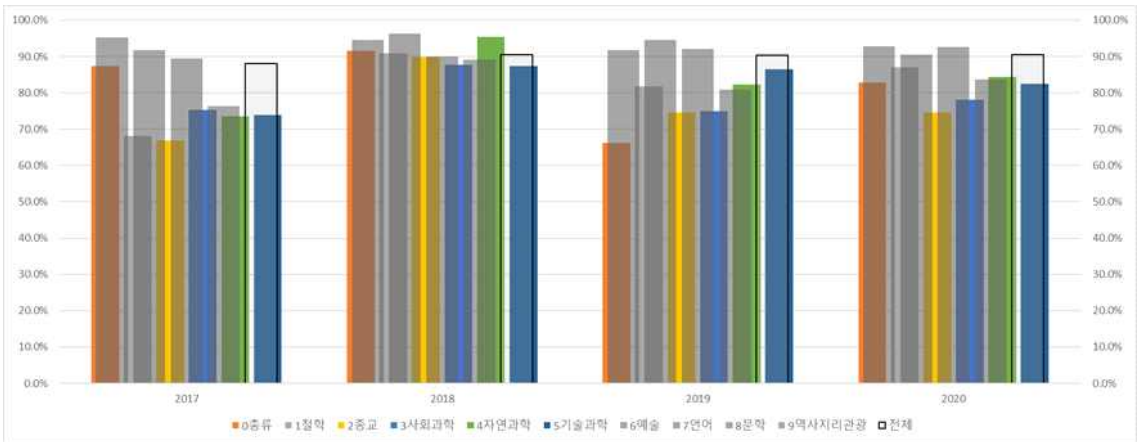
<그림 2-22> 전자책 ISBN 부가기호 독자대상기호 대비 미납본 비율



2) 전자책 ISBN 부가기호 내용분류기호 대비 미납본 도서

○ 전자책 ISBN 발급 대비 미납본 도서의 내용분류기호를 보면 문학, 언어의 미납본율(2018~2020년)이 약 9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그림 2-23> 전자책 ISBN 부가기호 독자대상기호 대비 미납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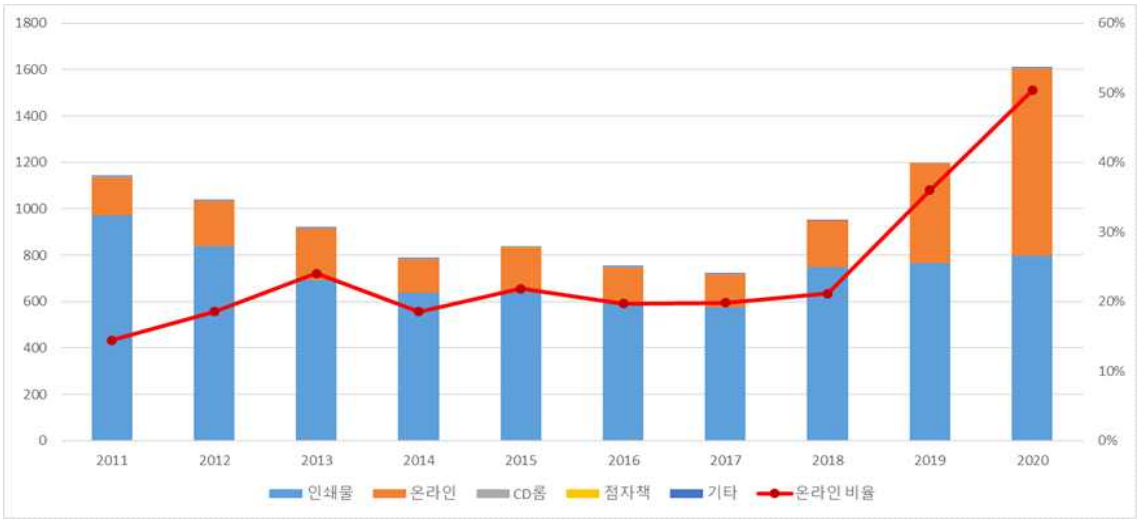


제2절 ISSN 발급과 납본 현황 분석

1. ISSN 발급 매체형태별 분석

○ 2011~2020년 발급된 ISSN(연속간행물)의 매체형태별 분석을 살펴보면, ISSN은 인쇄물 자료가 대부분이며 온라인 자료의 ISSN 발행은 증가 추세

<그림 2-24> ISSN의 매체형태별 분석



2. ISSN 발급 대비 납본 현황

○ 2011~2020년의 ISSN 발급 대비 납본율은 50~60%로 나타남

<그림 2-25> ISSN 발급 대비 납본율



가. 인쇄물 ISSN 발급 대비 납본 현황

○ 2011~2020년의 인쇄물 ISSN 번호 발급 대비 납본수 및 납본율

- 인쇄물 연속간행물의 납본율은 50~70%로 나타남

<그림 2-26> 인쇄물 ISSN 번호 발급 대비 납본수 및 납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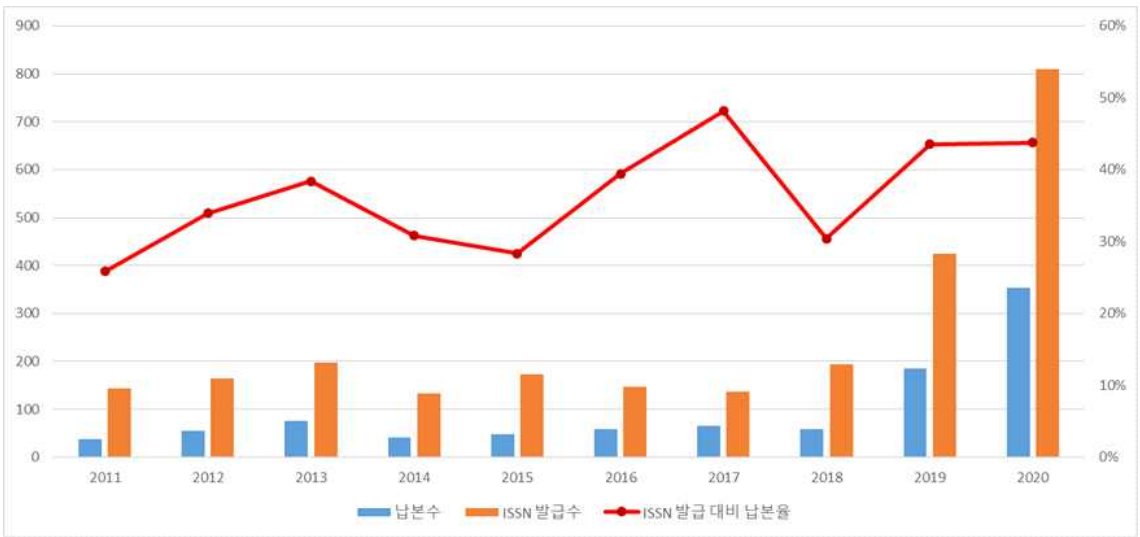


나. 온라인 ISSN 발급 대비 납본 현황

○ 2011~2020년의 온라인 ISSN 발급 대비 납본수 및 납본율

- 온라인 ISSN의 납본율은 약 30~50%이나 2018년 이후 최근 증가 추세임

<그림 2-27> 온라인 ISSN 번호 발급 대비 납본수 및 납본율



제3장

해외 사례와 국내 인식 조사

제1절 | 해외 사례 조사
제2절 | 국내 인식 조사
제3절 | 시사점

제3장 해외 사례와 국내 인식 조사

제1절 해외 사례 조사

1.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의 상관관계 문헌 요약

○ Vilks (2002)는 ISBN 발급 기관과의 협업으로 법적 납본의 가능성을 증대 시킬 수 있다고 함(Bukovska, Garklava, & Lapina, 2008 재인용)

○ Foo et al. (2005)은 싱가포르(Singapore)의 많은 출판사가 ISBN/ISSN을 발급받으면서 법적 납본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며 특히 작은 출판사의 경우 법적 납본을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함

○ Penzhorn (2008)은 남아프리카(South Africa)의 출판업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출판업자들은 ISBN을 발급받으면서 법적 납본을 인지하며, 따라서 ISBN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법적 납본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함

○ Van Camp (2002)은 벨기에(Belgium)의 경우 법적 납본이 요구되는 모든 출판물이 ISBN을 발급받는 것은 아니기에 ISBN으로 법적 납본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함

○ Bukovska, Garklava, & Lapina (2008)은 라트비아(Latvia)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ISBN과 ISSN을 발행하는 것이 법적 납본을 보다 잘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함

○ Bottis et al. (2019)는 최근의 IPA-WIPO의 조사를 바탕으로 많은 국가들이 현재 법적 납본과 ISBN/ISSN 연계하고 있다고 함

○ Oyadonghan와 Kakiri (2019)는 나이지리아(Nigeria)의 사례를 바탕으로 ISBN/ISSN을 활용하여 법적 납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법

적 납본을 하지 않는 출판사나 작가에 대하여 추후 ISBN/ISSN을 발급하지 않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함

2. OECD[1](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표준자료번호 운영 주체

가. OECD 38개국 ISBN 운영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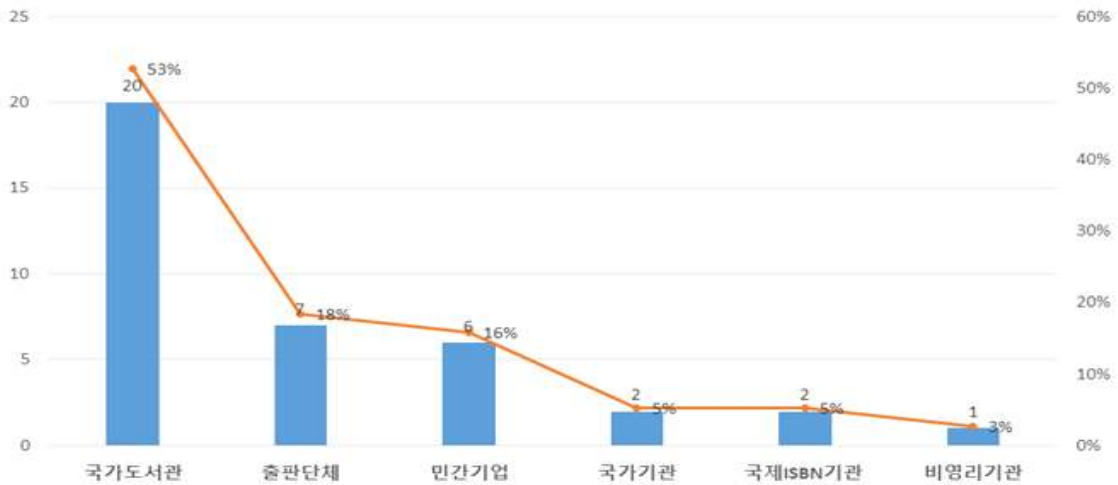
○ 2021년 10월 현재 OECD 38개국의 ISBN 운영 주체 현황 조사

- 절반 이상인 20개국(52.6%)은 국가도서관이 ISBN 발급 수행
- 출판단체(7개국, 18.4%)와 민간기업(6개국, 15.8%)이 34.2%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외 국가기관 2개국(5.3%), 국제ISBN기관 2개국(5.3%), 그리고 비영리기관이 1개국(2.6%) 있음

<표 3-1> OECD 38개국 ISBN 운영 주체 현황

운영주체	국가도서관	출판단체	민간기업	국가기관	국제 ISBN 기관	비영리기관
국가 수 (비율)	20 (52.6%)	7 (18.4%)	6 (15.8%)	2 (5.3%)	2 (5.3%)	1 (2.6%)

<그림 3-1> OECD 38개국 ISBN 운영 주체 현황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표 3-2> OECD 38개국 ISBN 운영 주체 세부 내용

국가명	운영기관	국가명	운영단체
호주	민간기업(Bowker)	일본	출판단체(JPO)
오스트리아	출판단체	한국	국가도서관
벨기에	국제ISBN기구	라트비아	국가도서관
캐나다	국가도서관	리투아니아	국가도서관
칠레	출판단체	룩셈부르크	국가도서관
콜롬비아	비영리기관	멕시코	국가기관
코스타리카	국가도서관	네덜란드	민간기업(B.V.)
체코	국가도서관	뉴질랜드	국가도서관
덴마크	국가기관	노르웨이	국가도서관
에스토니아	국가도서관	폴란드	국가도서관
핀란드	국가도서관	포르투칼	출판단체
프랑스	국제ISBN기구	슬로바키아	국가도서관
독일	민간기업(MVB)	슬로베니아	국가도서관
그리스	국가도서관	스페인	출판단체
헝가리	국가도서관	스웨덴	국가도서관
아이스랜드	국가도서관	스위스	출판협회
아일랜드	민간기업(Nielsen)	터키	국가도서관
이스라엘	국가도서관	영국	민간기업(Nielsen)
이탈리아	출판단체	미국	민간기업(Bowker)

나. OECD 38개국 ISSN 운영 주체

○ 2021년 10월 현재 OECD 38개국의 ISSN 운영 주체 현황 조사

- 대부분의 국가(33개국, 86.8%)에서 국가도서관이 ISSN 발급 수행

- 국가기관(3개국, 8.0%), 출판단체(1개국, 2.6%), 국제ISSN센터(1개국, 2.6%)가 13.2%를 차지하고 있음

<표 3-3> OECD 38개국 ISSN 운영 주체 현황

운영주체	국가도서관	국가기관	출판단체	국제 ISSN 센터
국가 수 (비율)	33 (86.8%)	3 (8.0%)	1 (2.6%)	1 (2.6%)

<그림 3-2> OECD 38개국 ISSN 운영 주체 현황



<표 3-4> OECD 38개국 ISSN 운영 주체 세부 내용

국가명	운영기관	국가명	운영단체
호주	국가도서관	일본	국가도서관
오스트리아	출판단체	한국	국가도서관
벨기에	국가도서관	라트비아	국가도서관
캐나다	국가도서관	리투아니아	국가도서관
칠레	국가기관	룩셈부르크	국가도서관
콜롬비아	국가도서관	멕시코	국가기관
코스타리카	국가도서관	네덜란드	국가도서관
체코	국가도서관	뉴질랜드	국가도서관
덴마크	국가도서관	노르웨이	국가도서관
에스토니아	국가도서관	폴란드	국가도서관
핀란드	국가도서관	포르투칼	국가도서관
프랑스	국가도서관	슬로바키아	국가도서관
독일	국가도서관	슬로베니아	국가도서관
그리스	국가도서관	스페인	국가도서관
헝가리	국가도서관	스웨덴	국가도서관
아이스랜드	국가도서관	스위스	국가도서관
아일랜드	국가도서관	터키	국가도서관
이스라엘	국제ISSN센터	영국	국가도서관
이탈리아	국가기관	미국	국가도서관

○ OECD 38개국의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와 납본을 주관하는 웹사이트 주소는 아래 <표 3-5>의 내용과 같음

<표 3-5> OECD 38개국의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주관 웹사이트 주소

구분	ISBN 웹사이트	ISSN 웹사이트	납본 웹사이트
호주 Australia	https://www.myidentifiers.com.au/	https://www.nla.gov.au/using-library/services-publishers/apply-isbn-issn-or-ismn/australian-issn-agency	https://www.nla.gov.au/using-library/services-publishers/legal-deposit
오스트리아 Austria	https://isbn-austria.at/	https://issn.at/	https://www.onb.ac.at/bibliothek/bibliothek-am-heldenplatz/bestandsaufbau/ablieferung-von-publikationen/pflichtablieferung-print
벨기에 Belgium	https://www.afnil.org	https://www.kbr.be/nl/issn/	https://www.kbr.be/nl/wettelijk-depot/
캐나다 Canada	https://www.bac-lac.gc.ca/eng/services/isbn-canada/Pages/isbn-canada.aspx https://www.banq.qc.ca/accueil/	https://www.bac-lac.gc.ca/eng/services/issn-canada/Pages/issn-canada.aspx	https://www.bac-lac.gc.ca/eng/services/legal-deposit/Pages/legal-deposit.aspx
칠레 Chile	http://camaradellibro.cl/	https://informacioncientifica.cl/issn/	https://www.bibliotecanacional.gob.cl/sitio/Secciones/Deposito-Legal/
콜롬비아 Colombia	http://www.camlibro.com.co/isbn	https://bibliotecanacional.gov.co/es-co/servicios/profesionales-del-libro/solicitud-issn	https://bibliotecanacional.gov.co/es-co/servicios/profesionales-del-libro/deposito-legal
코스타리카 Costa Rica	https://www.sinabi.go.cr/bibliotecas/issn_isbn.aspx	http://www.sinabi.go.cr/bibliotecas/issn_isbn.aspx	http://www.sinabi.go.cr/servicios/DepositolegalCostaRica.aspx
체코 Czech Republic	https://www.nkp.cz/sluzby/sluzby-pro/isbn-ismn-issn/isbn	https://www.techlib.cz/en/2774-czech-issn-center	https://www.en.nkp.cz/services/services-for/legal-deposits/legal-dep-n
덴마크 Denmark	https://www.isbn.dk/form.php?doc=tilmeldingsblanket_for_nye_forlag	http://www5.kb.dk/da/kb/service/pligtaflevering-ISSN/hvad_er_issn.html	http://www5.kb.dk/en/kb/service/pligtaflevering-ISSN/pligtaflevering.html
에스토니아 Estonia	https://www.nlib.ee/en/content/isbn-books	https://www.nlib.ee/en/content/issn-periodicals	https://www.nlib.ee/en/content/legal-deposit-copy
핀란드	https://www.kansalliski	https://www.kiwi.fi/displ	https://www.kansalliskirj

Finland	rjasto.fi/en/services/services-organizations/isbn	ay/ISSN	asto.fi/en/legal-deposit-office
프랑스 France	https://www.afnil.org/	https://www.bnf.fr/fr/identifiants-internationaux	https://www.bnf.fr/en/missions-bnf
독일 Germany	https://www.german-isbn.de/	https://www.dnb.de/DE/Professionell/Services/ISSN/issn_node.html	https://www.bsb-muenchen.de/en/competence-centers-and-state-wide-services/state-wide-tasks-and-services/legal-deposit-unit/
그리스 Greece	https://www.nlg.gr/listed/diethneis-arithmodotiseis/	https://www.dnb.de/DE/Professionell/Services/ISSN/issn_node.html	https://www.nlg.gr/static-page/kata-nomo-katathesi/
헝가리 Hungary	https://www.oszk.hu/isbn_ismn	https://www.oszk.hu/issn	https://www.oszk.hu/kotelespeldanyok
아이스랜드 Iceland	https://landsbokasafn.is/index.php?page=isbn-number	https://landsbokasafn.is/index.php?page=issn-number	https://landsbokasafn.is/index.php?page=instr-legal-deposits
아일랜드 Ireland	https://nielsenbook.co.uk/isbn-agency	https://www.nli.ie/en/issn.aspx	https://www.nli.ie/en/how-we-acquire-our-collections.aspx
이스라엘 Israel	https://www.icl.org.il/	No	https://www.nli.org.il/en/at-your-service/who-we-are/depositing
이탈리아 Italy	https://www.isbn.it/	https://bice.cnr.it/centro-italiano-issn	https://www.bncf.firenze.sbn.it/biblioteca/deposito-legale/
일본 Japan	https://isbn.jpo.or.jp/	https://www.ndl.go.jp/en/data/issn/	https://www.ndl.go.jp/en/collect/deposit/index.html
한국 Korea	http://seoji.nl.go.kr/front/service/isbn_info01.jsp	http://seoji.nl.go.kr/front/service/issn_info01.jsp	http://seoji.nl.go.kr/front/service/specimen_copy01.jsp
라트비아 Latvia	https://www.lnb.lv/lv/izdevejiem/isbn-gramatam	https://lnb.lv/en/publishers/issn	https://lnb.lv/en/publishers/legal-deposit
리투아니아 Lithuania	https://www.lnb.lt/leidejams/apie-isbn-ismn-issn	https://www.lnb.lt/leidejams/apie-isbn-ismn-issn	https://www.lnb.lt/leidejams/privalomojo-egzemplioriaus-pristatymas
룩셈부르크 Luxembourg	https://bnl.public.lu/fr/services-professionnels/agences-nationales.html	https://bnl.public.lu/fr/services-professionnels/agences-nationales.html	https://guichet.public.lu/en/entreprises/sectoriel/culture/secteur-litteraire/depot-legal-bnl.html
멕시코 Mexico	https://www.indautor.gob.mx/isbn/	https://www.indautor.gob.mx/issn/	https://bnm.iib.unam.mx/index.php/quienes-somos/deposito-legal/lineamientos

네덜란드 Netherlands	https://www.isbn.nl/	https://www.kb.nl/organisatie/voor-uitgevers/issn-centrum-nederland	https://www.kb.nl/en/organisation/for-publishers/deposit-library-for-dutch-publications
뉴질랜드 New Zealand	https://natlib.govt.nz/publishers-and-authors/isbns-issns-and-ismns	https://natlib.govt.nz/publishers-and-authors/isn	https://natlib.govt.nz/publishers-and-authors/legal-deposit
노르웨이 Norway	https://www.nb.no/standardnummerering/isbn/	https://www.nb.no/standardnummerering/issn/	https://www.nb.no/pliktavlevering/
폴란드 Poland	https://www.bn.org.pl/dla-wydawcow/isbn/kontakt-i-pomoc/	https://www.bn.org.pl/dla-wydawcow	https://www.bn.org.pl/dla-wydawcow
포르투칼 Portugal	https://isbn.apel.pt/pedido	http://www.bnportugal.gov.pt/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54:issn&catid=44:editores&Itemid=191&lang=pt	http://www.bnportugal.gov.pt/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53&Itemid=63&lang=en
슬로바키아 Slovak Republic	https://www.snk.sk/sk/sluzby/v-sidelnej-budove/sluzby-vydavatelom.html	https://www.ulib.sk/sk/narodna-agentura-issn/	https://www.snk.sk/sk/sluzby/v-sidelnej-budove/sluzby-vydavatelom/pokyny-pre-vydavatelov.html
슬로베니아 Slovenia	https://www.nuk.uni-lj.si/informacije/isbn	https://www.nuk.uni-lj.si/informacije/ISSN	https://www.nuk.uni-lj.si/informacije/obvezni-izvod#
스페인 Spain	https://www.agenciaisbn.es/	http://www.bne.es/es/LaBNE/CentroEspanolISSN/	http://www.bne.es/en/Colecciones/Adquisiciones/DepositoLegal/
스웨덴 Sweden	https://isbn.kb.se/	https://www.kb.se/om-oss/identifikatorer-och-utgivning/issn-.html	https://www.kb.se/insamling-och-pliktleverans/ska-du-pliktleverera.html
스위스 Switzerland	https://www.sbvv.ch/derisbn/25/ISBN-Agentur/bestellformular	https://www.nb.admin.ch/snl/en/home/information-professionals/issn.html	https://www.gbnews.ch/the-legal-deposit-keeping-the-printed-word-for-future-generations/
터키 Turkey	https://ekygm.gov.tr/Home/	http://www.ekygm.gov.tr/issn.html	https://www.tbmm.gov.tr/aplap/turkey2002/Library.htm
영국 United Kingdom	https://nielsenbook.co.uk/isbn-agency/	http://www.bl.uk/help/Get-an-ISBN-or-ISSN-for-your-publication	https://www.bl.uk/help/how-to-deposit-your-print-publications
미국 United States	http://www.isbn.org/	https://www.loc.gov/issn/	https://www.copyright.gov/mandatory/

3. ISBN 운영과 납본의 상관관계

가. OECD국가의 ISBN 운영과 납본 정보 제공 방식

○ 각 국가의 납본율 조사를 위해 문헌 외에 각 국가별 운영주체에 이메일을 보내 문의한 결과 각 국가별로 파악하고 있는 납본율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납본율 계산방식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음

○ 객관적인 납본율의 계산을 위해서 IPA-WIPO[2]에서 2018년에 각 국가의 출판협회에서 파악한(전자출판물 포함) 단행본의 총량 대비 국가도서관에서 납본으로 수집한 단행본의 총량을 각 국가의 납본율로 계산하여 이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함

- OECD국가의 2018년 납본현황과 출판현황을 보여주고 있음(없는 자료는 IPA-WIPO 설문에서 파악이 안 된 자료임)

- 이와 더불어 ISBN 발급 주체와 납본정보를 어떻게 ISBN 발급페이지에서 표시하고 있는지를 따로 조사함

○ 많은 국가도서관 주도의 ISBN발급 형태에서는 납본정보도 같은 섹션(페이지)에 표시하거나 동일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의 국가들은 관련링크를 표시하거나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음

<표 3-6> OECD국가의 ISBN 운영과 납본 정보 제공 현황

국가명	2018 납본현황	2018 출판현황	ISBN 발급주체	납본정보 제공
호주	10,197	13,296	민간기관	관련 링크
오스트리아	-	-	출판단체	언급 X
벨기에	18,541	22,444	민간기관	언급 X
캐나다	14,716	12,651	국가도서관	동일 섹션
칠레	7,025	8,152	출판단체	관련 링크
콜롬비아	25,019	13,913	국가기관	언급 X

2) "The Global Publishing Industry in 2018"(2019),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IPA)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코스타리카	2,158	2,158	국가도서관	동일 섹션
체코	16,676	16,422	국가도서관	동일 웹사이트
덴마크	-	-	국가기관	언급 X
에스토니아	4,785	5,420	국가도서관	동일 섹션
핀란드	25,418	9,369	국가도서관	동일 섹션
프랑스	82,313	106,799	민간기관	언급 X
독일	-	79,916	민간기관	언급 X
그리스	16,467	-	국가도서관	동일 섹션
헝가리	17,250	-	국가도서관	동일 섹션
아이스랜드	2,498	1,726	국가도서관	동일 섹션
아일랜드	1,602	2,191	민간기관	관련 링크
이스라엘	-	-	국가도서관	언급 X
이탈리아	60,058	130,376	출판단체	언급 X
일본	-	-	출판단체	관련 링크
한국	90,620	72,715	국가도서관	동일 섹션
라트비아	-	-	국가도서관	동일 섹션
리투아니아	4,838	3,075	국가도서관	동일 섹션
룩셈부르크	-	-	국가도서관	동일 섹션
멕시코	-	18,577	국가기관	언급 X
네덜란드	-	-	민간기관	언급 X
뉴질랜드	12,158	-	국가도서관	동일 섹션
노르웨이	14,978	6,724	국가도서관	동일 웹사이트
폴란드	55,964	-	국가도서관	동일 섹션
포르투칼	17,315	-	출판단체	언급 X
슬로바키아	6,043	-	국가도서관	동일 섹션
슬로베니아	7,375	4,898	국가도서관	동일 섹션
스페인	67,884	86,413	출판단체	언급 X
스웨덴	20,140	-	국가도서관	동일 웹사이트
스위스	-	-	출판단체	언급 X

터키	71,074	78,619	국가도서관	언급 X
영국	210,628	188,000	민간기관	관련 링크
미국	-	-	민간기관	언급 X

나. ISBN 발급 주체별 납본 정보 제공 방식 종합

○ ISBN 발급 주체별 납본정보를 어떻게 ISBN 발급페이지에서 표시하고 있는지를 따로 조사함

- 동일섹션: ISBN 발급 페이지에서 납본에 대한 정보를 같은 페이지에 표시하는 경우
- 동일 웹사이트: ISBN 발급 페이지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납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 관련 링크: ISBN 발급 페이지에서 납본에 대한 정보를 관련 링크로만 표시하는 경우
- 언급 없음: ISBN 발급 페이지 어디에서도 납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표 3-7> ISBN 발급 주체별 납본 정보 제공 방식

구분	동일 섹션	동일 웹사이트	관련 링크	언급 없음
국가도서관	15	3	-	2
국가기관	-	-	-	3
출판단체	-	-	2	5
민간기관	-	-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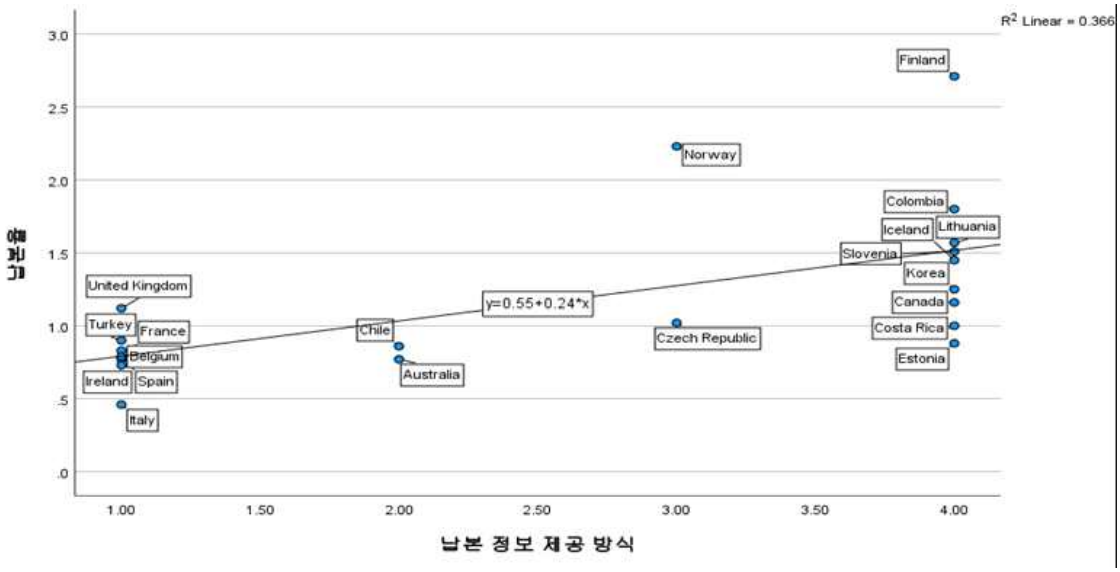
○ 국가도서관이 주체일수록 동일 섹션에서 납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음

○ 출판단체나 민간기관 일수록 납본 정보에 대한 제공이 없거나, 관련 링크를 제공하는 수준이었음

다. 납본 정보 제공 방식별 납본율 상관관계

○ 납본 정보 제공 방식과 납본율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회귀분석 수행

<그림 3-3> 납본 정보 제공 방식별 납본율 비교



- ISBN 발급 페이지에서 적극적인 납본정보 제공방식을 취할수록 2018 WIPO Survey의 국가별 납본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p<0.01$) 영향력의 크기도 상당함 ($R2=0.366$)

<표 3-8> ISBN 발급기관의 납본정보 제공방식과 납본율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471	.242		1.948	.067
납본정보 제공방식	.261	.080	.610	3.269	.004
a. 종속변인 : 2018 IPA-WIPO Survey 납본율 , R 2 =0.366					

라. ISBN 발급 주체별 납본율 상관관계

○ 2018 IPA-WIPO Survey 데이터 활용 분석 비교

-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이용하여 국가(도서관), 출판단체, 민간기관 주도의 ISBN 발급 형태에 따른 2018 IPA-WIPO Survey의 국가별 납본율의 차이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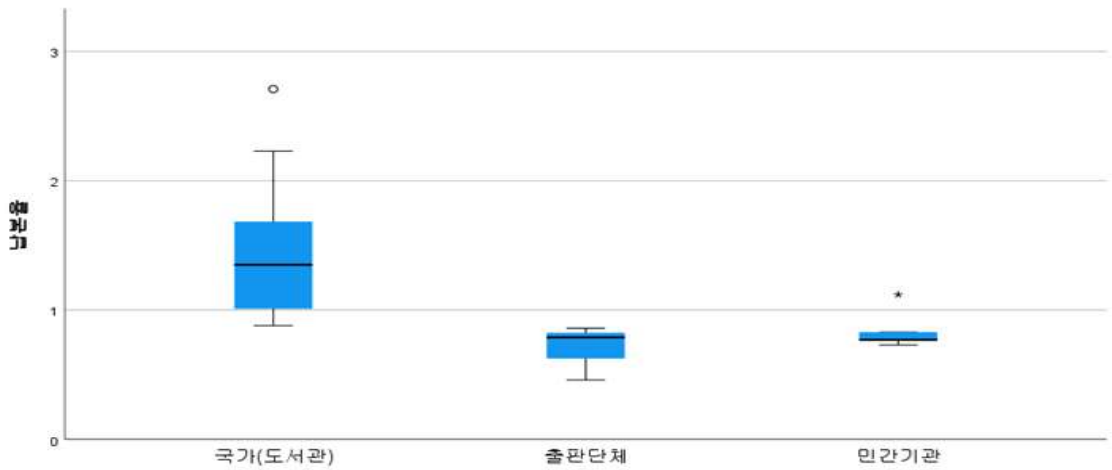
- 국가(도서관) 주도의 ISBN 발급 주체가 출판단체나 민간기관 주도의 ISBN 발급형태에 비해서 2018 IPA - WIPO Survey의 국가별 납본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p<0.05$)

<표 3-9> ISBN 발급 주체별 납본율 상관관계

구분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2.162	2	1.081	5.013	.019
Within Groups	3.666	17	.216		
Total	5.829	19			

- <그림 3-4>은 국가도서관 주도의 ISBN 발급형태가 출판단체 혹은 민간기관 주도의 ISBN 발급형태에 비해서 납본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음

<그림 3-4> ISBN 발급 주체별 납본율 분산분석 비교



○ 각 그룹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

- 국가(도서관) 주도의 ISBN 발급형태가 출판단체 주도의 ISBN 발급형태에 비해서 2018 IPA-WIPO Survey의 국가별 납본율에 유의미한 차이(109%)가 존재함 ($p<0.01$)

<표 3-10> ISBN 발급 주체별 납본율 독립표본 T 검정(국가 VS 출판단체)

구분	Code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납본율	국가(도서관)	12	1.46	.562	.162
	출판단체	3	.70	.214	.123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3.696	9.655	.004	.753	.204

- 국가(도서관) 주도의 ISBN 발급 주체가 민간기관 주도의 ISBN 발급형태에 비해서 2018 IPA-WIPO Survey의 국가별 납본율에 유의미한 차이(73%)가 존재함($p<0.01$)

<표 3-11> ISBN 발급 주체별 납본율 독립표본 T 검정(국가 VS 민간기관)

구분	Code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납본율	국가(도서관)	12	1.46	.562	.162
	민간기관	5	.84	.158	.071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3.461	14.176	.004	.613	.177

- 국가(도서관) 주도의 ISBN 발급 주체가 출판단체 및 민간기관 주도의 ISBN 발급형태에 비해서 2018 IPA-WIPO Survey의 국가별 납본율에 유의미한 차이(85%)가 존재함 ($p<0.01$)

<표 3-12> ISBN 발급 주체별 납본율 독립표본 T 검정(국가 VS 출판단체/민간기관)

구분	Code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납본율	국가(도서관)	12	1.46	.562	.162
	출판 / 민간	8	.79	.181	.064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3.816	14.143	.002	.665	.174

제2절 국내 인식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대상 : 종이책 2011~2020년/전자책 2017~2020년 1회 이상 ISBN 발급 출판사

○ 설문조사 방법: 이메일 설문

○ 설문조사 기간: 2021년 11월 3일~12일, 10일간

○ 설문조사 주요 내용

- 질문1. 현재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https://seoji.nl.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
- 질문2. 귀사의 (온라인) 출판물은 도서관법에 따라 납본이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귀사와 비슷한 많은 출판사들이 (온라인) 자료 납본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4. 서지정보지원시스템은 (온라인) 자료 납본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5. 귀사의 (온라인) 출판물을 납본하는 것은 지적기록문화유산의 후대 전승이라는 차원에서 가치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6. 귀사는 온라인자료를 납본할 경우 유출될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2. 설문조사 대상자 및 응답

○ 2021년 11월 현재 ISBN 발행자번호를 발급한 출판사는 (중복된 출판사를 포함하여) 70,085곳의 출판사가 있음

- 이들 중 종이책의 경우 2011~2020년, 전자책의 경우 2017~2020년에 최소 1회 ISBN 발급 신청을 한 출판사는 43,126곳 임
- 이들 중 최소 1회 종이책 ISBN 발급 요청을 한 출판사 35,520 곳과 최소 1회 전자책 ISBN발급 요청을 한 출판사 7,606곳으로 나눔
- 이들 중 이메일 주소가 존재하는 종이책 출판사 23,631곳과 전자책 출판사 5,413곳을 추출하였음
- 이들 중 중복된 이메일 주소나 제대로된 이메일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곳을 제외하고 종이책 16,657곳 전자책 3,81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

○ 설문지 중 90%이상 응답을 한 유효한 응답 수는 종이책이 2,164건(응답율 13.1%), 전자책이 793건(응답율 20.8%)임

<표 3-13> 설문조사 대상자 추출 과정과 유효 응답 수

출판사 구분	종이책	전자책
ISBN 발행자번호 발급 건수 (중복된 출판사 포함)	70,085	
최소 1 회 ISBN 발급 발행자수 (종이 : 2011~200년, 전자 : 2017~2020년)	43,126	
최소 1 회 종이책 ISBN 발급 요청	35,520	
최소 1 회 전자책 ISBN 발급 요청		7,606
이메일 주소 존재	23,631	5,413

중복된 이메일 주소 제외(반송)	16,657(87)	3,816(6)
유효 응답 수(90% 이상 응답)	2,164	793
응답율	13.1%	20.8%

○ 설문조사 응답 출판사 발행자번호 자릿수 분포

- 유효한 응답자인 종이책 2,164건과 전자책이 793건을 출판사 자릿수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음

- 대다수가 5~6자리 소규모 출판사임(이는 작은 규모의 출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임)

<표 3-14> 설문조사 응답 출판사 발행자번호 자릿수 분포

발행자번호 자릿수	종이책 (2,164)	전자책 (793)
2 자리 출판사	1	5
3 자리 출판사	9	29
4 자리 출판사	180	161
5 자리 출판사	764	317
6 자리 출판사	1,210	281
응답자 총합	2,164	793

3. 국내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과 납본제도 인식 분석

가. ISBN 발급과 납본제도 인식 분석

1) 종이책 ISBN 발급과 납본 인식 구조방정식 분석

○ 종이책 ISBN 발급과 납본 인식 분석을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분석

- 응답 종이책 출판사 2,164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함

○ 종이책 ISBN 발급과 납본 인식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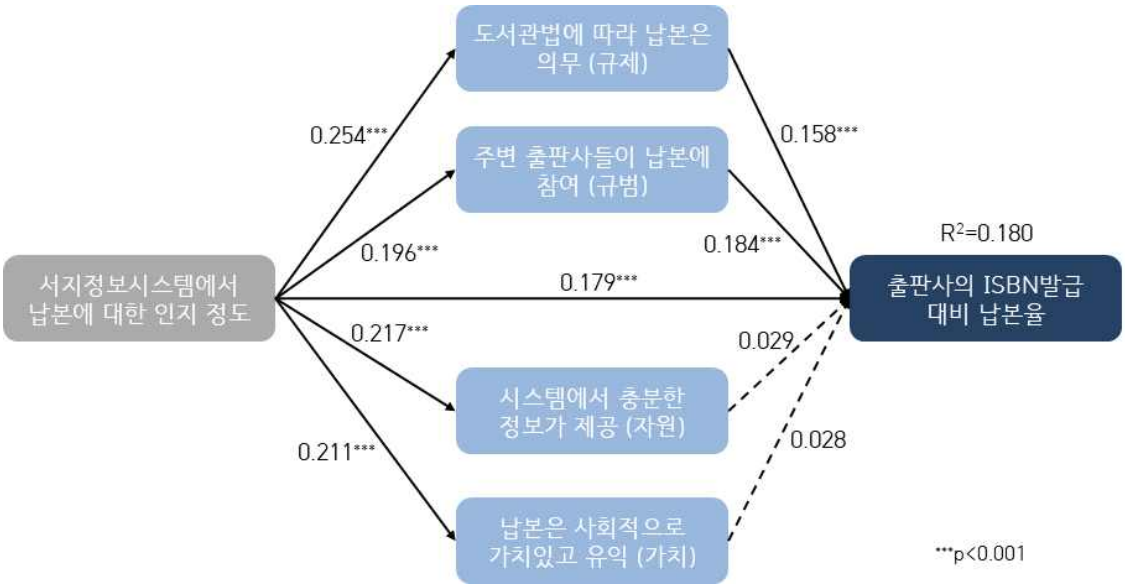
- 종이책의 경우 서지정보시스템에서 납본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출판사일수록 ISBN발급 대비 납본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함

- 이들 출판사들은 도서관법에 따라 납본은 의무라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주변 출판사들이 납본에 참여하는 정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ISBN 발급 대비 납본율이 높음

- 뿐만 아니라 서지정보시스템에서 납본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납본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규제, 규범, 자원, 가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이는 효과가 있음

- 하지만 시스템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정도와 납본이 사회적으로 가치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ISBN 발급 대비 납본율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이지는 못함

<그림 3-5> 종이책 ISBN 발급과 납본 인식 구조방정식 분석



2) 전자책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과 납본 인식 구조방정식 분석

○ 전자책 ISBN 발급과 납본 인식 분석을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분석

- 전자책 출판사 793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함

○ 전자책 ISBN 발급과 납본 인식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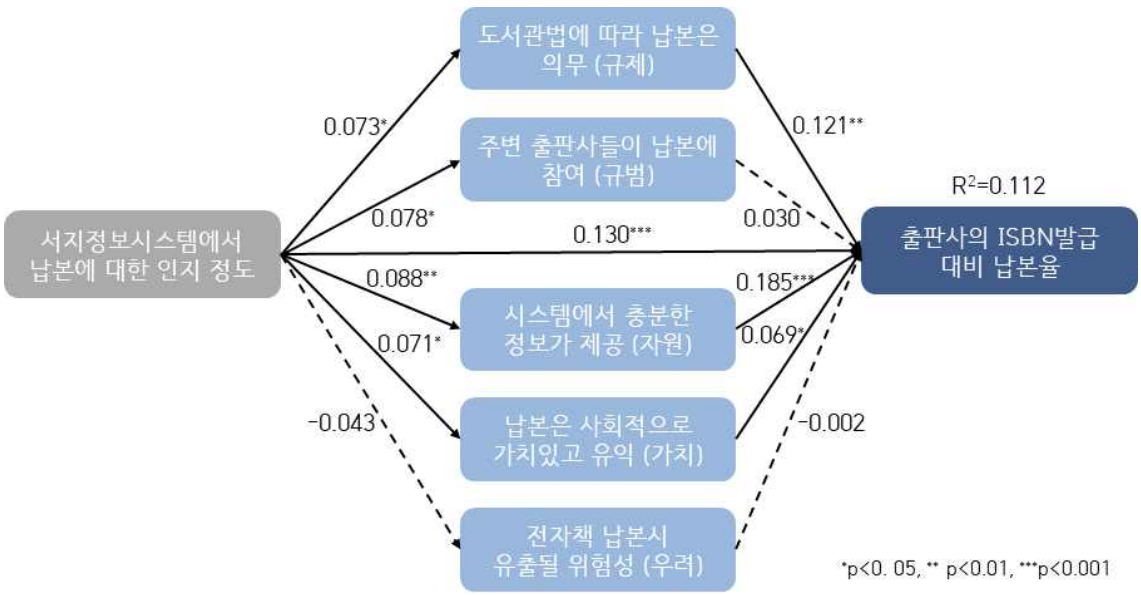
- 전자책의 경우에도 서지정보시스템에서 납본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출판사일수록 ISBN발급 대비 납본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함

- 이들 출판사들은 도서관법에 따라 납본은 의무라고 생각할수록, 시스템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납본이 사회적으로 가치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할수록 ISBN 발급 대비 납본율이 높음

- 뿐만아니라 서지정보시스템에서 납본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납본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규제, 규범, 자원, 가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이는 효과가 있음

- 하지만 주변 출판사들이 납본에 참여한다고 인지하는 정도와 전자책 납본 시 유출될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ISBN 발급 대비 납본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지 못함

<그림 3-6> 전자책 ISBN 발급과 납본 인식 구조방정식 분석



3) 종이책와 전자책의 납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종이책와 전자책의 납본율 및 납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 종이책과 전자책 출판사를 대상으로 각각의 납본율 요인에 대해 t-test(Independent Sample) 분석을 수행함

- 서지정보시스템에서 납본에 대한 인지도를 제외하고 규제, 규범, 자원, 가치 그리고 ISBN 발급 대비 납본율 모두 종이책의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 전자책 설문을 응답한 출판사는 전자책뿐만 아니라 종이책도 함께 출판한 경우가 많음

- 전자책의 경우 도서관법에 따라 납본을 의무라 생각하는 정도, 주변 출판사들이 납본에 참여한다고 인식하는 정도, 시스템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그리고 납본이 사회적으로 가치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종이책에 비해서 떨어짐

- 출판사의 ISBN 발급 대비 납본율도 종이책이 전자책에 비해서 월등히 높음

<표 3-15> 종이책와 전자책의 납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test 분석

구분	종이책	전자책	t-test (p)
서지정보시스템에서 납본에 대한 인지	1.65	1.78	0.011
도서관법에 따라 납본은 의무(규제)	4.03	3.82	0.000
주변 출판사들이 납본에 참여(규범)	3.69	3.43	0.000
시스템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자원)	3.48	3.19	0.000
납본은 사회적으로 가치있고 유익(가치)	4.27	4.06	0.000
출판사의 ISBN 발급 대비 납본율	0.59	0.25	0.000

나. ISSN 발급과 납본제도 인식 분석

○ ISSN과 납본 인식을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

- ISSN 발급 출판사 232곳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수행함

- 연속간행물의 경우 서지정보시스템에서 납본에 대한 인지 정도가 ISSN 발급 대비 납본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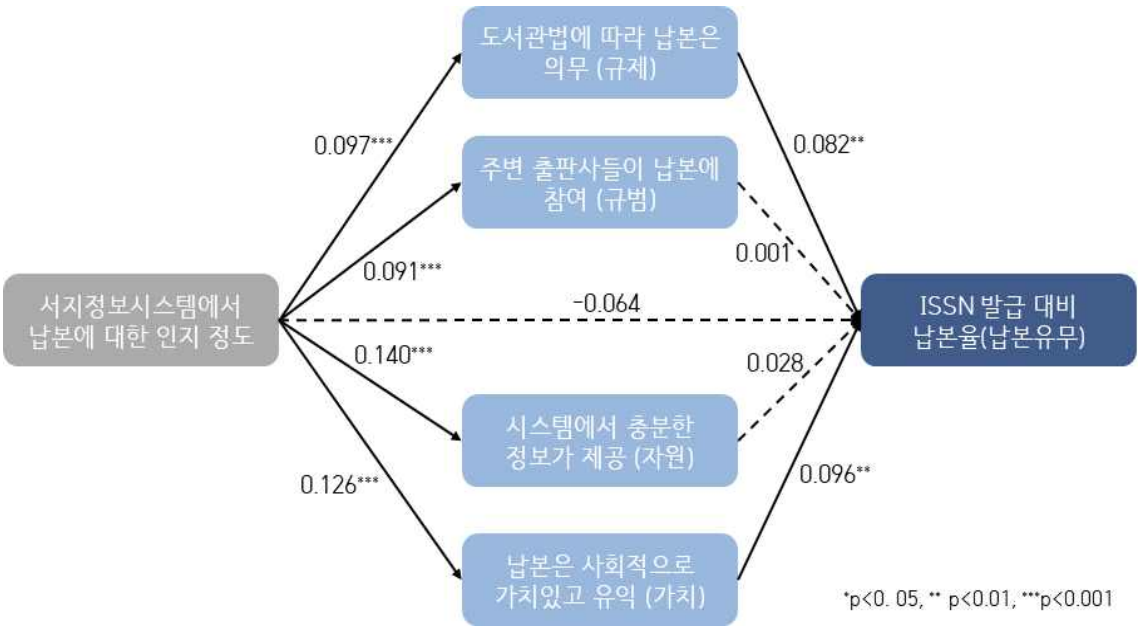
- 하지만 서지정보시스템에서 납본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납본에 영

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규제, 규범, 자원, 가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이는 효과가 있음

- 또한 연속간행물 출판사들은 도서관법에 따라 납본은 의무라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납본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ISSN 발급 대비 납본율이 높음

- 하지만 주변 출판사들이 납본에 참여하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와 시스템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정도는 ISSN 발급 대비 납본율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이지는 못함

<그림 3-7> ISSN 발급과 납본 인식 구조방정식 분석



제3절 시사점

○ 다수의 연구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과 법적 납본을 연계하여 납본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함

○ OCED국가의 ISBN 발급 형태와 IPA-WIPO (2019) 국가별 납본율 분석을 통하여 국립도서관 주도의 ISBN 발급이 출판단체/민간기관 주도와 비교하여 납본율이 70%이상 높음

○ 이러한 차이는 국가(도서관) 주도의 ISBN 발급이 보다 적극적인 납본정보 제공방식을 취하기에 출판사의 납본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분석(단일변수 설명력 36.6%)

○ 국내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종이책과 전자책의 경우 모두 서지정보시스템에서 납본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ISBN발급 대비 납본율이 상당히 높으며 또한 납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 규제, 규범, 자원, 가치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킴

○ ISSN의 경우 서지정보시스템에서 납본에 대한 인지가 ISSN발급 대비 납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납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 규제, 규범, 자원, 가치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켜 간적접으로 납본율에 영향을 줌

○ 결론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과 납본을 연계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출판사의 납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납본을 관리 및 통제할 수 있음

제4장

관련 법제도와 시스템 분석 및 운영 개선

제1절 | 관련 법제도와 시스템 분석
제2절 | 시사점과 개선 제언

제4장 관련 법제도와 시스템 분석 및 운영 개선

제1절 관련 법제도와 시스템 분석

1.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의 법제도 연관 특징

가. 한국문헌번호 운영의 특징

○ 도서관법에 따라 국내에서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발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ISBN, ISSN), 유상(有償) 납본 대상(ISBN, ISSN), 국가운영과 무료 발급(ISBN, ISSN) 혜택이 있는데, 이는 해외와 다르게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과 납본 대상의 법제도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국내에서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발급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ISBN이나 ISSN을 부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서관법에 의해 유상 납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심지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국내 출판물 식별체계 제도 개선 및 국가센터 운영 방안 연구』에서는 국내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 즉, 한국문헌번호 제도를 해외 출판 선진국의 국제표준자료번호 운영 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다섯 가지 특징으로 정리하였음[3)]

- 첫째 도서정가제 대상(ISBN), 둘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ISBN, ISSN), 셋째 유상(有償) 납본 대상(ISBN, ISSN), 넷째 국가운영과 무료 발급(ISBN, ISSN), 다섯째 5자리 부가기호 도서관 활용(ISBN)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3) 출판유통진흥원(2020), 『국내 출판물 식별체계 제도 개선 및 국가센터 운영 방안 연구』, pp127-134 발췌

<그림 4-1> 한국문헌번호 제도 운영의 5가지 특징



※ 자료: 출판유통진흥원, 「국내 출판물 식별체계 제도 개선 및 국가센터 운영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20. 8.

○ 다섯 가지 한국문헌번호 제도 운영 특징 중에서 특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ISBN, ISSN), 유상(有償) 납본 대상(ISBN, ISSN), 국가운영과 무료 발급(ISBN, ISSN)의 세 가지 법제도적 연관 관계는 다음과 같음

나. 유상(有償) 납본

○ 「도서관법」 제20조 "도서관자료[4]의 납본" 제1항에서는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한 자는 「도서관법」 제47조에서 도서관자료 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있음. 또한, 시행령 제13조의 4(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에서 그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 4(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4) 도서관법 제2조(정의) ②항,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표 4-1>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 4(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제13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는 자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도서관자료(제13조의2에 따른 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市價)에 납본 또는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한다.

다. 국제표준자료번호의 국가 운영과 무료 발급

○ 국내에서 국제표준자료번호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무료로 발급받고 있으나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에서는 국가ISBN관리기구(National ISBN Agency)를 민간 회사 또는 유관 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ISBN 발급 수량에 따른 비용을 책정하여 받고 있음. 캐나다, 싱가포르, 루마니아, 뉴질랜드 등에서는 국립도서관이 ISBN, ISSN, ISNI와 CIP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국가도서관의 80.5%가 ISBN·ISSN·CIP·기타 중 하나 이상을 관리하는데, 이중 ISBN 58.6%, ISSN 60.8%, CIP 41.3%, 기타(ISNI, ISMN, ISAN 등) 26%로 파악됨. 아래 <표 4-2>는 국가도서관의 ISBN, ISSN, CIP 운영 사례를 나타냄

<표 4-2> 국가도서관의 ISBN, ISSN, CIP 운영 사례

캐나다	Library and Archives Canada (LAC) - ISBN·ISSN·CIP 발급
싱가포르	The National Library Singapore - ISBN·ISSN·CIP·ISMN 발급
루마니아	The National Library of Romania - ISBN·ISSN·CIP·ISMN 발급
뉴질랜드	The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 ISBN·ISSN·ISMN·ISNI 발급

-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서 국가ISBN관리기구를 운영하는 영국(Nielsen Book), 독일(MVB), 미국(Bowker), 일본(JPO), 호주(Thorpe-Bowker)의 경우 ISBN 발급 시 출판사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바코드 제작에도 비용이 따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아래 <표 4-3>은 ISBN 민간 관리 국가의 ISBN 발급 비용을 나타냄

<표 4-3> ISBN 민간 관리 국가의 ISBN 발급 비용(2021년 11월 기준)

구분	민간 관리기구	ISBN 비용
영국	Nielsen Book	- 1개: £89 - 10개: £164 - 100개: £369 - 1,000개: £949
미국	Bowker	- 1개: $125 - 10개: $295 - 100개: $575 - 1000개: $1,500
독일	MVB	- 1개: €70 - 10개: €180 - 100개: €230 - 1000개: €310
일본	JPO	- 1개: ￥8,000 - 10개: ￥20,000 - 100개: ￥37,000
호주	Thorpe-Bowker	- 1개: $44 - 10개: $88 - 100개: $480 - 1000개: $3,035

- 각 국가의 ISBN 및 ISSN 운영·관리 주체와 발급 비용 유무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4-4>와 같음

<표 4-4> 국가별 ISBN · ISSN 운영 및 관리 주체와 발급 비용 유무(2021년 11월 기준)

국가	구분	운영 주체	성격	ISBN/ISSN 발급비용 유무
영국	ISBN	Nielsen	민간 기업	○
	ISSN	영국국립도서관	국가(도서관)	X
미국	ISBN	Bowker	민간 기업	○

	ISSN	미국의회도서관	국가(도서관)	X
독일	ISBN	MVB	민간 기업	○
	ISSN	독일국립도서관	국가(도서관)	X
프랑스	ISBN	AFNIL	민간 단체	○
	ISSN	프랑스국립도서관(BnF)	국가(도서관)	X
캐나다	ISBN	Library and Archives Canada	국가(도서관)	X
	ISSN	Library and Archives Canada	국가(도서관)	X
일본	ISBN	일본출판인프라센터(JPO)	민간 단체	○
	ISSN	일본국립국회도서관	국가(도서관)	X

2. 관련 법조문과 지침

가. 도서관법 관련 주요 제·개정 연혁

○ 납본 및 국제표준자료번호와 관련된 도서관법의 주요 제·개정 연혁은 아래 <표 4-5>와 같음

- 국제표준자료번호는 도서관법상으로는 1988년 2월 28일부터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한국문헌번호편람-도서번호편>이 발행된 1991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함

- 도서관법 일부개정(2016.2.3.)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를 명확히 함

<표 4-5> 납본 및 국제표준자료번호와 관련된 도서관법의 제·개정 연혁

법령명	제·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도서관법 (법률 제1424호)	1963.10.28. 제정	1963.11.28.	제12조(도서관자료의 제공과 납본) : 출판사는 도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간행물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제29조(과태료): 위반 시 정가 5배
도서관법 (법률 제3972호)	1987.11.28. 전부개정	1988.2.28.	제17조(자료의 제공 및 납본) 제47조(과태료): 위반 시 정가 10배 이하 제18조(국제표준자료번호)
도서관진흥법 (법률 제4352호)	1991.3.8. 제정	1991.4.9.	제17조(자료의 제공 및 납본) 제18조(국제표준자료번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법률 제4746호)	1994.3.24. 제정	1994.7.25.	제17조(자료의 제출) 제18조(국제표준자료번호)
도서관법 (법률 제8029호)	2006.10.4. 전부개정	2007.4.5.	제20조(자료의 납본)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도서관법 (법률 제9528호)	2009.3.25. 일부개정	2009.9.26.	도서관자료의 범위에 온라인자료를 포함(제2조 제2호) 장애인용 자료의 효과적 제작·보급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의 납본(법 제20조제2항) 온라인 자료의 수집(제20조의2 신설)
도서관법 (법률 제13960호)	2016.2.3. 일부개정	2016.8.4.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디지털 자료의 납본 수집 근거를 신설함(제20조 및 제20조제2항 신설) 전자출판물에 대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근거를 명확히 함(제21조제1항).

나. 관련 도서관법 조문

○ 도서관법 제2조(정의)

-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

○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 받은 온라인자료 포함(2016.8.4),

수정 증보판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 공공기관이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
- 또한,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 학습교재, 이용 설명서 등의 변환, 제작을 목적으로 디지털 파일형태로 납본
- 도서관자료의 선정, 종류, 형태,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
> ③ 삭제 <2020. 12. 22.>
>
>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2016. 2. 3., 2020. 12. 22.>
>
> ⑤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
> [제목개정 2009. 3. 25.]

○ 도서관법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

-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72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는 도서관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9. 21., 2016. 7. 26., 2019. 7. 2.>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납본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 형태의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7. 26., 2021. 6. 15.>

1.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
2.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
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

③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7. 26.>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④ 삭제 <2021. 6. 15.>

⑤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 7. 26., 2021. 6. 15.>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2부.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3부
3. 삭제 <2021. 6. 15.>

⑥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9. 9. 21., 2014. 8. 12., 2016. 7. 26., 2021. 6. 15.>

○ 도서관법 제47조(과태료)

- 제47조(과태료) ① 제20조 제1항[5]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5)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2016.2.3>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 장서개발 지침과 납본 지침

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 국가 장서는 현재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잠재적 이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다. 장서개발은 포괄성을 추구하되,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제, 유형, 언어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적용

-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도서관 자료의 법적 납본, 국내외 자료의 구입, 수증, 국제교환·기탁, 매체변환, 제작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국가 장서를 개발·관리

○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 세부지침[6]은 납본과 구입으로 나뉘며, 납본 관련 지침으로 도서, 비도서, 온라인자료의 수집대상과 제외대상 지침을 표시하고 있음. 그 중에서 도서와 온라인자료의 수집대상과 제외대상 지침은 <표 4-6>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표 4-6>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 세부 지침- 납본(도서, 온라인자료)

구분		내용
도서	납본 대상	①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출판물(도서관법 제20조제1항) ② 초판 및 그 이후의 개정판 등(수정판, 보완판, 수정증보판, 완전 개정판 등) ③ 도서의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출판사항 또는 판사항이 다른 경우 ④ 재쇄(reprinting)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변화(추가 또는 삭제)가 있는 경우 ⑤ 내용과 서지사항이 동일하면서도 장정이나 판형이 다른 경우, 국내에서 발행된 자료로서 본문의 언어가 영어나 기타 서양언어로 기술된 자료 ⑥ 49쪽 이상의 단행본(단, 전체 분량이 50쪽 미만임에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도서)

6)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nl.go.kr/NL/contents/N50107010300.do

		⑦ 족보(판권지의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함)
	납본 제외	① 내용, ISBN, 서지사항이 동일한 도서로, 연도의 상이성 여부를 불문하고 재쇄(중쇄)인 경우 ② 도서의 형태를 취하지만 내용이 거의 없는 자료(다이어리, 한자연습장, 스티커북, 그림연습장, 독후감 노트, 그림본, 오선지만 그려진 자료, 활용 후 가치가 소멸되는 미제본형 일회성 자료) 및 낱장자료(단어카드, 낱말카드, 퍼즐, 시계보기, 그림그리기) 등 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는 납본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학원교재 및 강의자료로 정답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방문학습 교재 ④ 공중 배포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등이 발행·제작한 100책 이하의 개인 저작물 ⑤ 창작물이 아닌 이미 공개된 자료를 표지, 판권지 등을 달리하면서 원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행·제작한 자료 ⑥ 통상적인 자료의 판매가격 책정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가격이 현저하게 고가(高價)인 자료 ⑦ 주로 광고정보, 판촉정보, 상품정보를 게재한 자료
온라인자료 도서관법	납본 대상	① 전자출판물에 대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유.무상 온라인자료 ② 그 외 기준은 도서의 납본 기준을 준용한다.
	납본 제외	① 출판물 자체에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표시하지 않은 자료 ② 일반적인 자료의 형태 및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료 - 미리보기 등의 기능을 하는 체험판 - 49페이지 미만의 자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분량(글자수 등)이 미달되는 자료 - 웹상에서 연재 중인 자료 - 오디오북이 아닌 단순 MP3 파일 ③ 출판사항, 형태사항, 파일형식 등은 다르면서 내용이 동일한 자료(복본자료) - 도서관 소장 자료 또는 원문 구축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자료 - 표지의 서명만 약간 다르고 내용이 동일한 자료 - 합본으로 발행된 자료를 분책하여 재발행한 자료(개별자료로 나누어 중복 제작) - 특정내용 또는 페이지를 반복적으로 복사하여 전체 분량을 늘인 자료 - 납본 시행일 이전에 발행 제작한 인쇄책을 납본 시행일 이후에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료 - 납본 시행일 이전에 발행.제작한 전자책을 내용 개정

		없이 ISBN만 바꾼 자료 - 발행 주기가 짧고 내용 수정이 미미하여 일반적인 개정판으로 볼 수 없는 자료 ④ 오픈 액세스를 기반으로 제작한 자료 ⑤ 족보(ISBN의 부여 여부와 무관) ⑥ 학원교재 및 강의자료 등 학습교재 ⑦ 영유아용 학습도서 ⑧ 개인블로그, 출판사 자체 (판매) 사이트, 자가출판플랫폼, 1인출판 플랫폼 등에서만 판매.유통되는 자료 ⑨ 기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의한 반려 처리 자료 및 그와 유사한 자료 ⑩ 그 외 기준은 도서의 납본 제외 기준을 준용한다. ⑪ 단, 납본 제외 자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다.

2)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수집 지침[7)]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유·무상 인쇄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을 준용, 국내 인쇄자료는 5수준(포괄적 수준)으로 납본 수집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유·무상 온라인 자료
  - 납본 시행(2016. 8. 4.) 이전 발행 자료는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에 한하여 수집
  - 오디오북, 연재 완결된 웹툰의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에 한하여 요청 수집
- 납본 제외 자료
  - 「한국문헌번호편람」의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 부여 제외자료
  - 단, 납본 제외 자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본 수집할 수 있음

7)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수집 지침(제정 2019. 7. 1. 개정 2020. 8. 5.), 장서개발과

- 그 외 납본 제외 자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수집 규정」 및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준용

라.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대상과 납본 수집 자료

○ 한국문헌번호편람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과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의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를 비교해 보면 납본 수집 대상은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대상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도서관 자료임을 알 수 있음

-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와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대상을 비교하면 <표 4-7>과 같음

<표 4-7>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 VS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대상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	ISBN 부여대상	ISSN 부여 대상	비고
1. 도서	○		
2. 연속간행물		○	
3. 악보, 지도 및	○		낱장 인쇄악보 ISBN 제외 (악보책인 경우 부여)
가제식(加際式 : 끼우고 뺄 수 있는) 자료		○	가제식 자료 ○
4.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		교육용 이 아닐 경우 ISBN 적용 제외 / 비도서 음반 , 영화비디오 자료
6.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		전자책, 오디오북 등을 CD, DVD 출판 자료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 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		점자자료 ○
8.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9. ISBN 을 부여 받은 온라인자료	○		
10. 장애인용 디지털파일			

- 한국문헌번호편람에 따른 ISBN 부여 대상과 제외 자료는 <표 4-8>과 같음

<표 4-8> ISBN 부여 대상과 제외 자료

ISBN 부여 대상 자료	ISBN 부여 제외 자료
• 출판사에서 정기적으로 갱신하거나 무한정 계속 간행할 의도가 없는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 • 인쇄 도서와 소책자(4p. 이상) • 표제면이나 텍스트 캡션이 있는 아트북, 도록 • 복합매체출판물(주된 구성 요소가 텍스트에 기반한 경우-CD, DVD 포함도서) • 단행본 형태의 체험북(컬러링북, 글쓰기책, 수수께끼책, 스티커북 등) • 점자자료 • 개별논문(기사)이나 특정한 계속자료의 특별호 (계속자료 전체는 대상이 아님) • 지도 • 전자출판물(인터넷상 또는 전자매체 수록) • 오디오북(인터넷상 또는 물리적 매체 수록) •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시청각 자료 • 마이크로형태 자료 • 전자책 앱, 그림과 동영상, 사운드(상당한 텍스트 포함할 경우)	• 그 전체가 서지적 개체로 취급되는 계속 자료 (가제식 자료 및 웹 사이트 등 포함, 각 호에는 ISBN 동시 부여 가능) • 추상적 창작물 • 광고용 , 마케팅을 위한 자료(전단지 , 위젯 등) • 일반적 유통이 아닌 맞춤 출판 및 자가 출판 도서 • 연감·연보의 성격을 가진 주소록 • 수명이 짧은 인쇄자료(달력, 리플릿, 포스터 등) • 문구류에 해당하는 노트(일기장, 학습플래너, 독서기록장, 알림장, 다이어리, 스케치북) • 낱장자료(퍼즐, 플래시카드 등) • 보드게임 • 낱장 인쇄악보(악보책인 경우 부여) • 표제면이나 본문(텍스트)이 없는 화첩 및 아트 폴더 • 개인적인 기록(전자이력서나 개인신상 자료) • 연하장이나 인사장 • 음악 녹음 자료 • 전자게시판 • 전자우편과 기타 전자서신 • 게임 • 웹사이트 , 홍보 또는 광고물 , 탐색엔진 • 교육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 필름 , 비디오 , DVD, 슬라이드 • 접속 권한이 별도로 있는 인터넷상의 전자출판물

- 한국문헌번호편람에 따른 ISSN 부여 대상과 제외 자료는 <표 4-9>와 같음

<표 4-9> ISSN 부여 대상과 제외 자료

ISSN 부여 대상 자료	ISSN 부여 제외 자료
• 정기간행물을 포함한 연속간행물 • 연속간행물 또는 도서에 포함된 각개의 연속적인 부록 • 연간서(보고서, 연감 등) • 학술지 • 회보, 회의록, 회의보고서 • 신문(종이신문, 인터넷신문) • 단행본 총서	• ISBN 부여 대상 단행 자료 • 주로 광고, 판촉, 상품정보를 게재한 자료 • 지역단위의 교회, 클럽, 취미 및 운동단체, 비전문학회, 서비스 조직, 학교 등에서 발행된 특정 이해집단에게 공지하기 위한 소식지 • 자치단체나 그 하위조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또는 행정적 특성을 내포한 자료 (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은행, 법인, 협회 등의

• 전자 저널 등의 전자출판물(인터넷상 또는 전자매체 수록) • 계속 갱신자료(갱신에 의해 추가되었거나 변경된 계속자료로서 갱신 내용이 별도의 독립된 자료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료에 통합되는 간행물) • 데이터베이스 • 웹사이트 • 가제식 자료	직원을 위한 뉴스레터) • 지역별 및 업종별 전화번호부 (단, 국가에서 발간한 전화번호부는 부여 대상) •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학습서 • 개인적 자료(개인 웹사이트, 온라인 다이어리 등) • 일시적 자료 • 기업, 기관 및 커뮤니티 웹사이트 • 상업적 학습 웹사이트 • 링크로만 구성된 웹사이트

3. 연관 시스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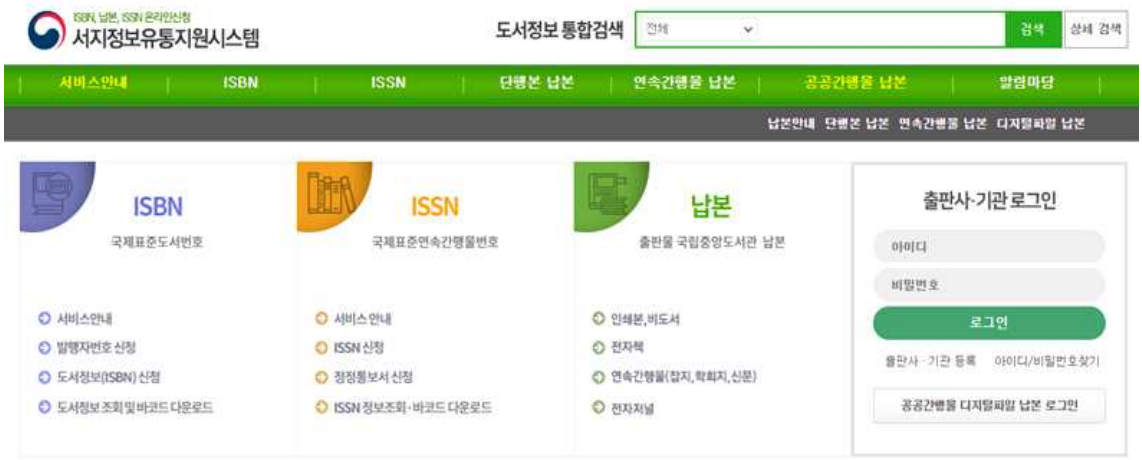
○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은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의 발급 등록에서 납본까지 하나의 웹사이트(같은 섹터)에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담당하는 국가서지과와 납본을 담당하는 장서개발과, 온라인자료과가 지식정보관리부 아래 함께 있어 밀접한 연계 체계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ISBN 등록 데이터와 납본 수집 데이터 간의 연계 검증 체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

<그림 4-2>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메인 페이지 구조



- 장서개발과에서 납본율을 계산할 때 국가서지과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비 납본율을 계산한다거나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도서를 대상으로 수집을 하는 것은 아니라 시중 유통도서를 활용한 미납도서 수량을 파악하여 납본율을 계산하고 있음

제2절 시사점과 개선 제언

1. 시사점

○ 첫째,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업무 연계 효율 측면에서 앞서 국내외 자료와 조사 분석 결과에서 보았듯이 국가 주도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이 법적 납본을 연계하여 납본율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출판사의 납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납본을 관리할 수 있음

- 국가(도서관) 주도의 ISBN 발급이 보다 적극적인 납본정보 제공방식을 취하기에 출판사의 납본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 국립도서관 주도의 ISBN 발급이 출판단체/민간기관 주도와 비교하여 납본율이 70%이상 높음

- 국내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경우 모두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납본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ISBN발급 대비 납본율이 상당히 높으며 또한 납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 규제, 규범, 자원, 가치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킴

- ISSN의 경우 서지정보시스템에서 납본에 대한 인지가 ISSN발급 대비 납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납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 규제, 규범, 자원, 가치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켜 간적접으로 납본율에 영향을 줌

○ 둘째, 관련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국가도서관이 국제표준자료번호 운영 주체일수록 동일 섹션에서 납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서비스를 연계 운영하여 사용자 편의 측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었음

-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경우 이용자 측면에서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이 동일 섹션에서 서비스되어 효율을 제고하고 있었으나, 관리자 측면에서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데이터를 납본 수집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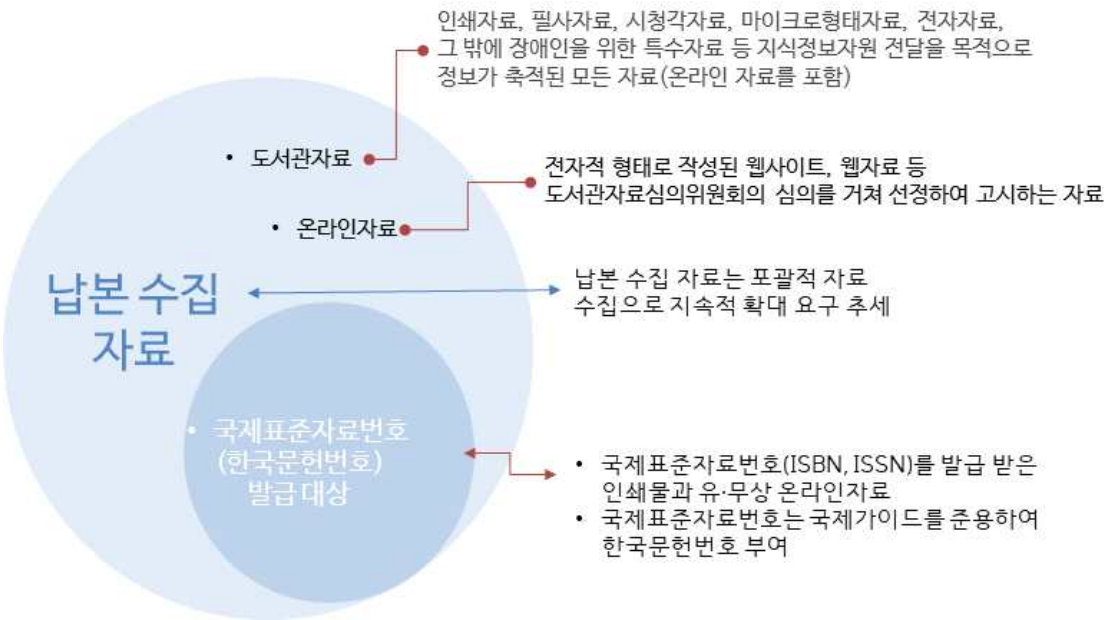
부서에서 활용하는 시스템 연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

○ 셋째, 관련 법제도 운영 측면에서 도서관법에서 도서관자료의 납본(도서관법 제20조), 국제표준자료번호(도서관법 제21조),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과 납본 수집 지침, 한국문헌번호편람 등에서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대상에 대한 납본 근거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한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납본 수집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넷째,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과 납본 현황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자료에 대한 100% 납본 수집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표준자료번호 부가기호별 납본율도 분야별 편차를 보이고 있었음

- 납본 수집 자료는 도서관 자료뿐만 아니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유·무상 인쇄물과 온라인자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대상보다 광범위하며, 특히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자료에 대비 납본율을 향상 시키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림 4-3> 납본 대상 자료와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대상 관계



- 도서관 자료: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
- 온라인자료: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 자료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받은 유·무상 온라인 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는 국제가이드를 준용하여 한국문헌번호 발급)

2. 개선 제언

○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연구 사례가 없었던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업무의 연계와 효과성에 대해 처음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문헌조사, 설문조사 그리고 통계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보여준데 의의가 있음

- 국가도서관 주도의 국제표준자료번호 운영 효율성 및 납본 제도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 본 연구의 현황 분석 및 해외 사례 조사, 국내 인식 조사 등을 통해 그 근거와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했으며, 국가도서관 주도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조사연구를 통해 데이터로 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이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와 납본 업무는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고, 보다 효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본 연구 결과에 대해 유관 학계, 도서관 그리고 출판 관련 전문가의 자문내용과 함께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

- 첫째,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관련 연계 기능을 고도화 하여 관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통계 제공 필요

  •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내에서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에 대해 유기적인 데이터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과 납본 현황을 부가기호 5자리를 활용하여 독자대상, 내용분류, 발행형태별 납본율 관리 체제를 마련할 수 있음

  • 납본 대상과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 간의 모호성 해소를 위해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대상에 임의 코드체계를 부여하여 납본 현황을 관리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납본율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된 간행물과 납본 실태에 대해 기간별(월별/연도별), 분야별, 발행자별, 출판 형태별, 가격대별, 언어권별 등 다양한

통계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산업 분야와 연구자, 언론 등에서 인용 또는 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고도화 필요

- 둘째,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신청 → 출판 여부 확인 → 납본 확인의 시스템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유통 시스템 연계가 필요함

  •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후 최종 출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미 출간에 의한 미 납본 비율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후 납본 대상 자료에 대한 안내 자동 고지(팝업, 이메일 등)와 출판사가 출간 후 출간 확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 검토 필요

  • 종이책, 전자책 등의 주요 유통사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발행 여부를 파악하고, 출판유통통합전산망[8]과 연계를 통해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후 발행, 유통되는 도서의 정보를 파악하여 납본 수집 대상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함

- 셋째,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유관 협력이 필요함

  • 출판사 등록 할 때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제도에 대한 홍보 안내를 좀 더 강화하고, 정기적인 홍보 계획 필요

  • 출판유통 채널과 연계를 확대해서 소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납본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규모 있는 예산 확보와 인적 구성 그리고 민관 협력 체계가 요구됨. 국립중앙도서관 내 유관 부서와 시스템 연계뿐만 아니라, 출판업계, 유통업계와의 연계 협력 강화 필요

  • 또한 도서의 발행종수와 관련해서 납본 대행처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의

8) 2021년 9월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시작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국내 출판유통구조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해 구축된 출판유통정보 통합관리시스템(서비스 플랫폼)으로, 출판물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실시간으로 정보화함으로써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던 출판유통정보를 통합 관리함. https://bnk.kpipa.or.kr/

출판연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반기별 생산 통계 보고서, 대형 서점 및 유통사 등의 통계가 서로 달라 난립하는 상황으로 표준화 내지 대표적인 통계로 활용하기 위한 도서 발행 통계 집계기관 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며,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월별, 연도별 출판 통계를 발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기를 기대함

- 넷째,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후속연구를 제언함

  •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업무의 연계뿐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통해 국민에게 어떤 국가 서지 통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 온라인자료 등 납본 수집 대상이 되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출판물은 향후 지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 현실적인 납본율 증대와 납본제도 개선, 국내 유상 납본 체계 하에 대상 및 예산 반영 문제 유기적 검토 연구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국립중앙도서관(2020),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수집 지침
* 국립중앙도서관(2018), 한국문헌번호편람. 개정7판
* 김나영, 오일석(2016), 도서의 납본과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513-532.
* 노영희(2009), 국내외 국가도서관 납본절차 분석을 통한 납본업무의 합리적 운영방안 도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173-188.
* 오선영, 정연경(2012),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3권 제4호, 2012
* 오선영, 정연경(2012), 출판사의 납본 인식을 통한 납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141-160.
* 윤희윤(2003), 한국의 납본제도 개선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 2003
* 윤희윤(2014),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수집력 강화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5-26.
* 출판유통진흥원(2020), 국내 출판물 식별체계 제도 개선 및 국가센터 운영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20. 8.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12),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해외 문헌>

* Bottis, M., Papadopoulos, M., Zampakolas, C., & Ganatsiou, P. (2019). Text and Data Mining in the EU Acquis Communautaire Tinkering with TDM & Digital Legal Deposit. Erasmus L. Rev., 12, 190.
* Bukovska, D., Garklava, R., & Lapina, D. (2008). Development of legal deposit in Latvia. Paper presented at the 16th BOBCATSSS Symposium, Zadar, Croatia.
* Cadavid, J. A. P. (2017). Evolution of legal deposit in New Zealand: From print to digital heritage. IFLA journal, 43(4), 379-390.
* Degerstedt, S., & Philipson, J. (2016). Lessons learned from the first year of E-legal deposit in Sweden: ensuring metadata quality in an ever-changing environment.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4(7), 468-482.
* Ekere, J. N., Omekwu, C. O., & Ken-Agbiriogu, E. (2021). Authors' Awareness of International Publishing Standards and Legal Deposit Obligation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igest, 14, 25-43.
* Foo, S., Wu, H., Lim, S., Haliza, J., Noryati, A., Mohamed, S., & Tim, Y. (2005). Legal

deposit development in Singapore: future challenges and issu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tional Libraries in the Knowledge Based Society.

* Gibby, R., & Green, A. (2008). Electronic legal deposit in the United Kingdom. New Review of Academic Librarianship, 14(1-2), 55-70.
* IPA, WIPO. (2019). The Global Publishing Industry in 2018. Accessed at https://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488
* Muir, A. (2006). Publisher Views of and Role in the Extension of Legal Deposit to Non-Print Publications in the UK. Publishing History, 60, 51-73.
* Oyadonghan, J. C., & Kakiri, I. F. (2019). International standard for publishing and legal deposit compli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tudies, 5(2), 1-7.
* Penzhorn, C. E. (2008). The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an effective legal deposit system for South Africa. University of Pretoria.
* Stirling, P., Illien, G., Sanz, P., & Sepetjan, S. (2012). The state of e-legal deposit in France: looking back at five years of putting new legislation into practice and envisioning the future. IFLA journal, 38(1), 5-24.
* Tokuhara, N. (2009). The Situation and Issues of the Legal Deposit System in Japan: From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 Survey Commemorating the Sixtieth Anniversary of the Legal Deposit System. Alexandria, 21(2), 47-55.
* Van Camp, A. (2020). How to assess and improve the coverage of the Legal Deposit collection in Belgium? In Monte Artium, 13, 71-103.

<참고 사이트>

*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http://seoji.nl.go.kr/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 세부 지침. https://www.nl.go.kr/NL/contents/N50107010300.do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https://bnk.kpipa.or.kr/home
* OECD 38개국의 ISBN, ISSN, 납본 운영 웹사이트(링크 주소 본문 <표 3-5> 참조)
* 독일 ISBN 구매 상점, https://www.isbn-shop.de/
* 미국 ISBN 구매 상점, https://www.myidentifiers.com/
* 영국 ISBN 구매 상점, https://www.nielsenisbnstore.com/Home/Isbn
* 일본 ISBN 구매 상점, https://isbn.jpo.or.jp/index.php/fix__about_8/
* 호주 ISBN 구매 상점, http://www.myidentifiers.com.au/